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글, 사진, 디자인)은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 서면 허락 없이
그 어떠한 형태나 수단(아날로그, 디지털)과 목적(영리, 비영리)을 위한 무단 복제와 전제를 금합니다.
© 2020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2020 ANNUAL REPORT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주소 강원 강릉시 율곡로 2923-12 (교동, 강릉시립모루도서관) 4층 전화 033-640-4961 이메일 gnmedia.or.kr@gmail.com 홈페이지 http://www.gnmedia.or.kr
편집교열	김수민
편집	씨티디스튜디오
인쇄	성원애드피아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GANGNEUNG MEDIA CENTER

2020 ANNUAL REPORT



계획에 없던 일들을 폭넓게 수행해야 했던 한 해, 스태프들의 전문성, 자발성, 그리고 조직의 유연성이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

2020년은 미리 계획했던 사업들보다도 계획에 없던 일들을 폭넓게 수행해야 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상황 때문이지요. 센터 게시판에는 단축운영, 부분폐쇄, 행사연기 등을 알리는 공지가 떴지만 센터 스태프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센터의 상설교육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원격수업 전면화로 혼란을 겪는 초·중·고교를 찾아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운영 방법, 온라인 생중계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온라인 강좌나 온라인 행사의 필요성에 직면한 공공기관과 단체들을 위해서도 온라인 수업 스튜디오, 온라인 생중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상시 지원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봉쇄와 폐쇄, 거리두기를 한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미디어, 나아가 미디어센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피부로 와 닿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활동에서 뿐 아니라, 센터 고유 사업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위기대응에 나섰습니다. 6인 이내의 가족에게 상영관을 대여하는 ‘식구식구 영화관’은 감염 위험 때문에 자칫 장기 휴관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센터 상영관에 이용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만든 작지만 주효한 기획이었습니다. 교육사업의 경우 단순히 온라인 강의 운영에 그치지 않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연구개발이라는 미래형 과제도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계획했던 창작지원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하여 지역 영화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창의적 위기관리를 해나갔던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스태프들의 전문성, 자발성, 그리고 조직의 유연성이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선정 2020년 ‘올해의 우수 미디어센터’ 표창이나, ‘전 국민 디지털역량강화 거점센터’ 선정 등의 가시적 성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디어센터 설립 10주년, 인디하우스 위탁운영 3년이 되는 2020년을 돌아보며 외부의 인정과 성과지표 달성에 자족하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기의 시대를 건너면서 미디어센터의 사회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미디어센터와 함께 한 모든 분들, 센터 이용자, 협력기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택트’가 대세가 된 시대 더욱 절실해진 ‘온택트’의 최전선에서 애쓴 센터 스태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센터 소장 고재정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을 새삼스레 떠올리는 한 해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일상화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변화하게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몇 달이면 종식될 것만 같았던 코로나 19 사태가 연말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음력 5월 단오장에서 다같이 불꽃을 보며 축제를 즐기고 8월 한여름 밤 별빛과 기차 소리가 함께 하는 정동진독립영화제로 여름을 만끽하고 11월이면 하얀 입김과 따뜻하고 다양한 국적의 영화를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던 것이 이제는 아득한 먼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을 새삼스레 떠올리는 한 해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초연결 사회 진입으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삶의 편의성 확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접근성 차이로 인한 디지털 미디어 격차 발생입니다.

초연결 사회 진입은 조작과 휴대가 간편해진 디지털 미디어 장비와 24시간 쏟아지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노출됨을 뜻합니다. 알고리즘의 추천이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계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지만 한편으로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미디어 격차 문제는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치부되어 그의 심각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듯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격차 문제는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경제적 불평등 등 다양한 환경과 결부됩니다. 디지털 미디어 발전 속도와 비례하게 격차는 심해져 갑니다. 2020년에는 비대면 활동 증가로 디지털 미디어 격차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돌출됐습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을 위한 미디어 이해와 영상매체 활용 사업을 주도하며 디지털 미디어 격차 해소에 힘써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많은 분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온라인 수업 지원과 미디어를 바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사업들을 주최했습니다. 노인 대상 미디어 격차 해소 교육, 공공기관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지원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활동 지원이 적은 강릉에서 영상미디어센터로서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미디어교육자, 미디어활동가, 독립영화감독 등 다양한 미디어 전문가들과 함께했습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한 모든 분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에는 올 한해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사무국장 최승철

목차

1

2

센터일반 8P

코로나로 바뀐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20P

인사글
고재정 소장

4p

- ①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CI
- ②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조직도

인사글
최승철 사무국장

5p

- ③ 소식듣기
- ④ 운영위원회
- 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일반현황
- ⑥ 대여사업
 - 장비대여
 - 공간대여
- ⑦ 회원제도
 - 회원제도
 - 정회원교육현황
 - 정회원 현황
- ⑧ 시설장비
 - 공간현황
 - 기자재현황
- ⑨ 상영
 - 주말상영
 - 찾아가는 영화관
 - 영화관을 빌려드립니다
 - 미디어떼끼
- ⑩ DVD 현황

- ① 미디어로 코로나 19 극복하기
- ② 미디어/영화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 ③ 지역 기관 온라인 인프라 지원
- ④ 지역 기관 연계 포스트 코로나 대응
- ⑤ 코로나 대응 온라인 수업
- ⑥ 소규모 수업&컨설팅 활성화
- ⑦ 노인미디어교육
- ⑧ 장애인 미디어문화향유사업
- ⑨ 지역아동센터 미디어문화향유사업
- ⑩ 소규모, 온라인 상영사업

3

미디어교육 34P

- ① 상설강좌
- ② 코로나 대응 교육
 - 온라인 교육
 - 제작 컨설팅
 - 노인대상교육
 - 소외계층 대상 교육
- ③ 외부자원 활용 교육
- ④ 공동체 미디어교육
- ⑤ 연구 개발

4

제작지원 42P

- ① 독립영화제작지원
 - 제작비지원
 - 장비·공간지원
- ② 시민영상제작지원
 - 시민영상제작지원
 - 동아리제작지원
 - 교육지원
 - 공간지원
- ③ 코로나 대응 기관
온라인 인프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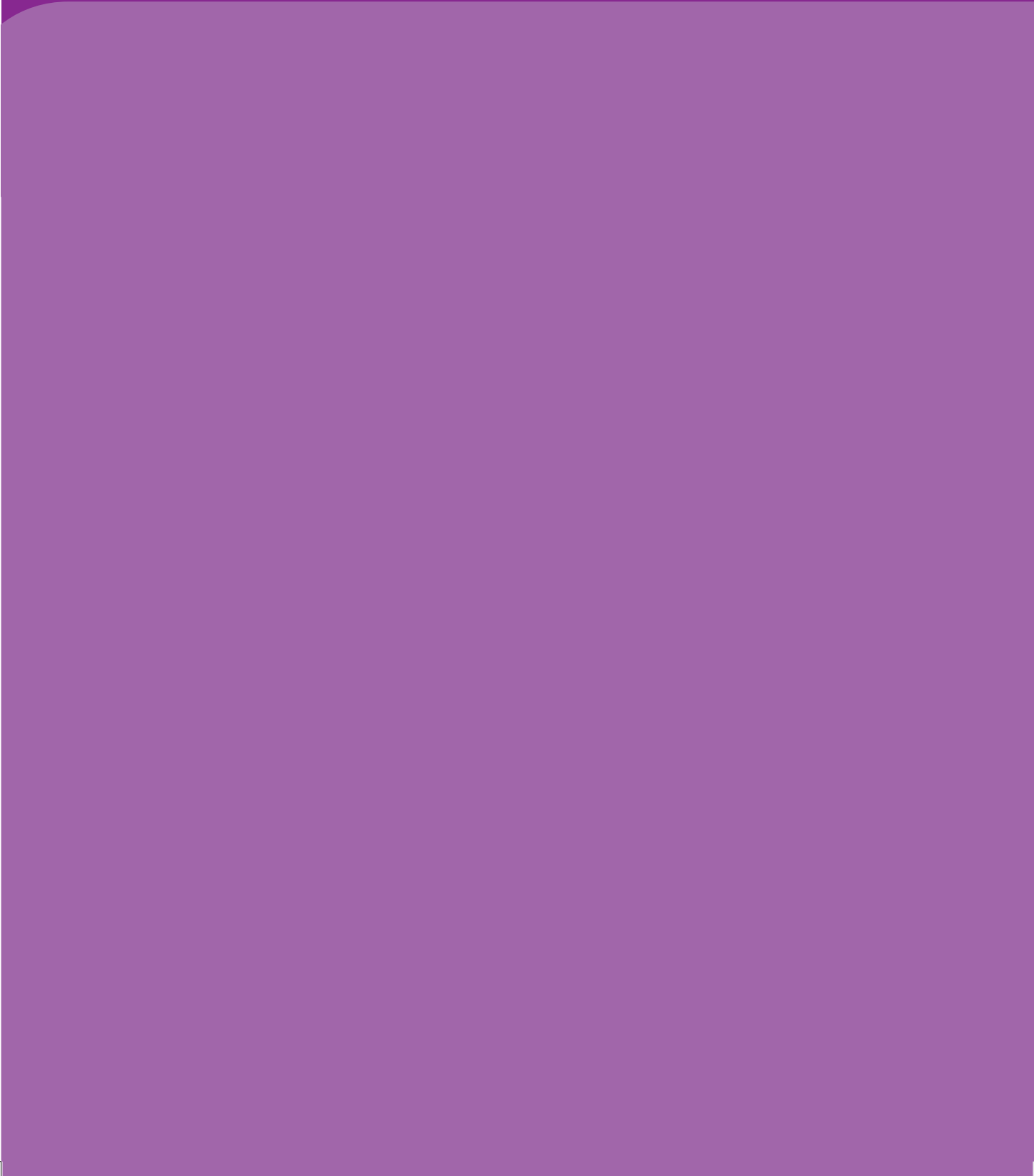
5

교육사례 52P

- ① 대표 미디어교육 사례
 - 이해리
 - 정재빈
- ② 시범 교육 진행기
 - 박은희
 - 김하진
 - 김준기
 - 허규연

부록 8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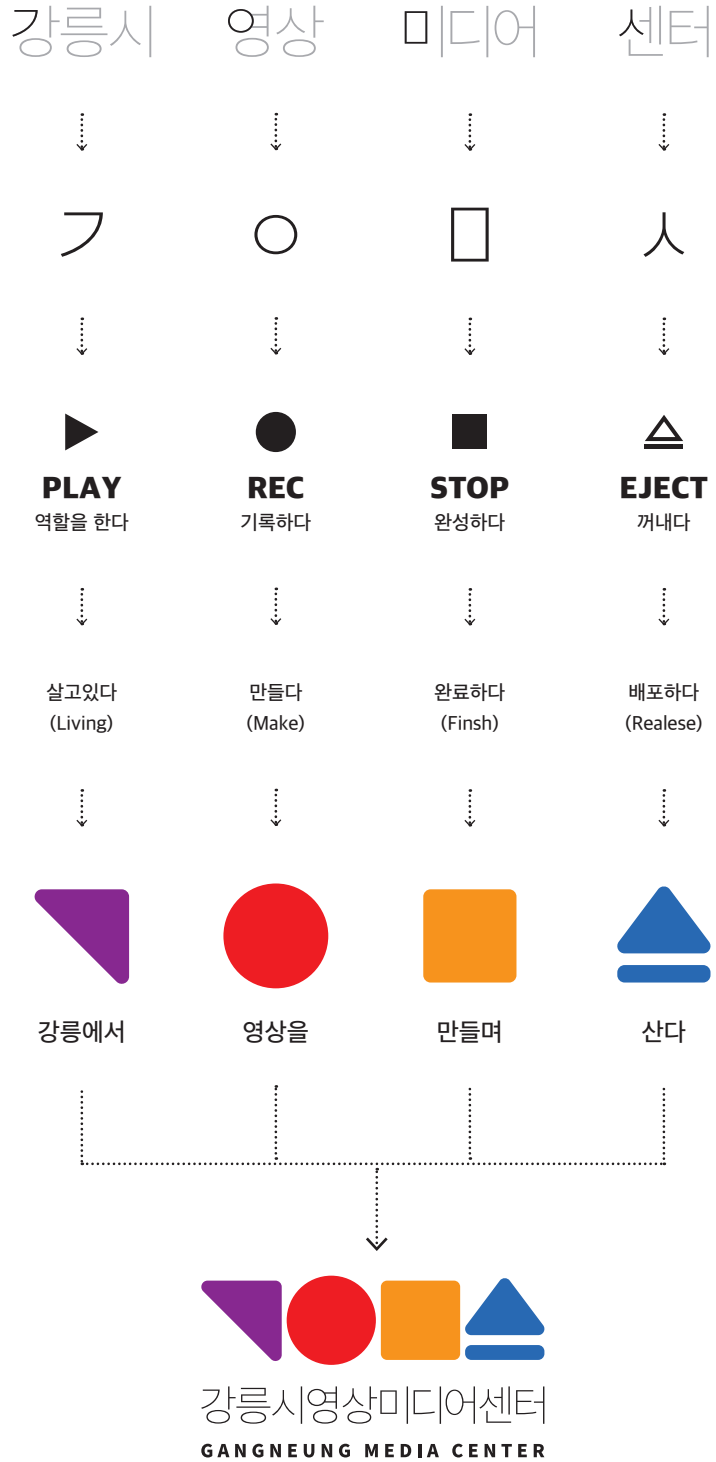
-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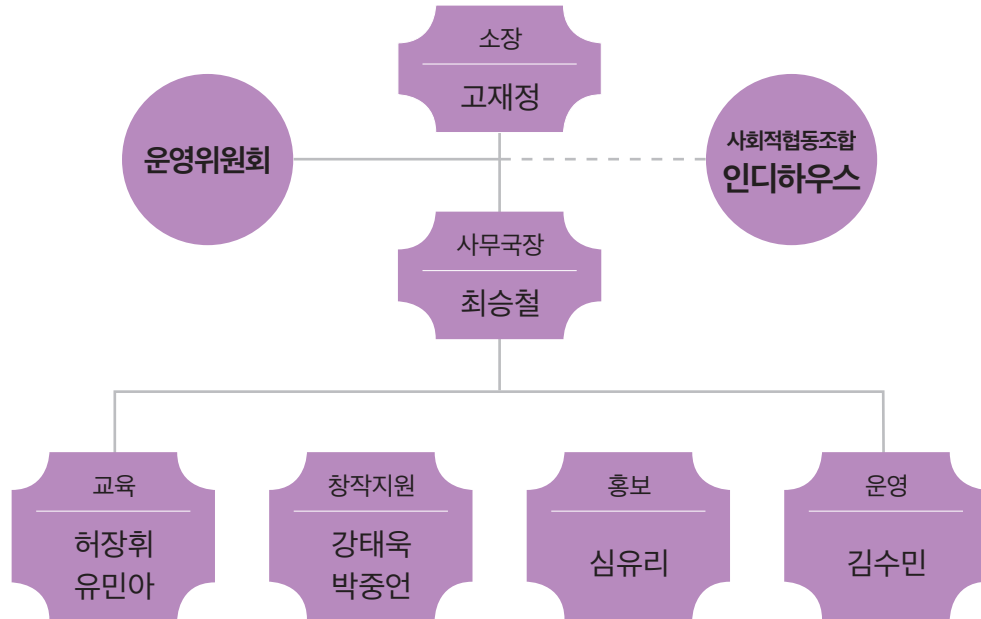
1

센터일반

①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CI



2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조직도



3 소식듣기

www

blog

f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④ 운영위원회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지켜내고자 미디어센터의 사업방향과 예산, 인사, 행정 등 주요한 사항을 연 1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미디어 전문가, 시민영상제작자,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부터 1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 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미디어 전문가 5명, 시민영상제작자 1명, 강릉시의회 1명,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소장 1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강릉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관광복지국장 1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담당 과장 1명이 감사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위원 명단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별	비고
위원장	권정삼	강릉씨네마떼끄 대표	여	위촉직
부위원장	김성태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남	위촉직
위원	강원호	강릉 KBS PD	남	위촉직
위원	고재정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소장	여	위촉직
위원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남	당연직
위원	반영숙	시민영상제작자	여	위촉직
위원	조주현	강릉시의회 의원	남	위촉직
위원	최명복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멀티미디어공학과)	남	위촉직
위원	홍경문	미디어아트 작가	여	위촉직

㉔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일반현황

위치 및 규모



소재지	규모	개관일	공간
강릉시 울곡로 2923-12 (교동822번지 舊명주군청사) 現 행복한 모 루	4층 1,054㎡ (319평)	2010년 4월 7일	스튜디오 강의실 상영관 편집실 기자재실 사무실 디지털교육실 미디어테크

시설 및 설립 개요

- 설립재원 14억원(문화관광부 7억원, 강원도 2억원, 강릉시 5억원)
- 공사기간 2009년 4월~2010년 3월
- 개관일 2010년 4월 7일

운영 개요

-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22:00/일요일10:00~18:00
- 휴관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회원

- 일반회원 홈페이지 가입 회원 및 메일링 신청자 2,699명
- 정회원 473명

사업 분야

- 교육사업 정규미디어강좌, 공동체미디어교육 등
- 상영사업 찾아가는 영화관, 기획 상영, 상영관 대여 및 지원 등
- 창작지원사업 독립영화제작지원, 시민영상제작지원, 동아리지원, 공간/기자재 대여 및 지원 등
- 홍보사업 회원관리, 홈페이지 관리, 웹진 발행, 보도자료 등
- 행정사업 회계 및 행정 전반

⑥ 대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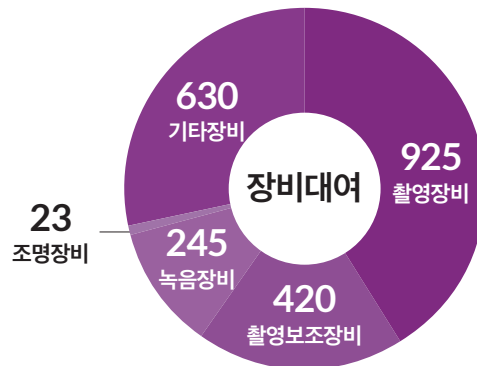
대여사업은 장비대여와 공간대여로 구분되며 정회원만 대여 신청이 가능하다. 매달 진행하는 정회원교육(가입비 1만원)을 1회 이수하면 평생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장비대여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장비는 촬영장비 8종, 촬영보조장비 12종, 녹음장비 8종, 조명장비 6종 등이며 그 외 위탁장비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장비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탁받은 장비는 영화진흥위원회 장비 30종,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장비 11종이며, 2020년 장비대여 운영결과, 전체 대여 장비 중 촬영장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위:명

장비구분	강릉센터	위탁장비		전체
		강원시청자미디어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1537	611	95	2,243
촬영장비	634	252	39	925
촬영보조장비	288	114	18	420
녹음장비	168	67	10	245
조명장비	16	6	1	23
기타장비	432	172	27	630
총계	3,075	1,222	190	4,486



공간대여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대여 공간은 강의실, 스튜디오(음향녹음실 포함), 전문편집실, 일반편집실이다. 2020년도 운영결과, 공간대여는 스튜디오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일반편집실이 12건으로 많았다.

공간	대여신청건수
전체	36
강의실	8
스튜디오	13
전문편집실	3
일반편집실	12



회원제도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회원은 매월 1회 이상 개설되는 정회원교육(평생가입비 1회, 1만원)을 이수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구분	교육수강	제작지원	기자재대여	공간대여	미디어페그
비회원	○	×	×	×	○
일반회원	○	×	×	×	○
정회원	○(25% 할인)	○	○	○	○

정회원 교육 현황

정회원은 평생 1회 미디어센터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마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 자격과 의무 및 권리 등은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미디어센터의 사용과 장비 이용에 있어 우대한다.

<교육비>
10,000₩
(강릉시청 개설 계좌로 입금)

공간 및 장비 사용료

사용신청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정회원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우대하나 사용 목적이 영리목적일 때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2010~2020
누적 정회원 수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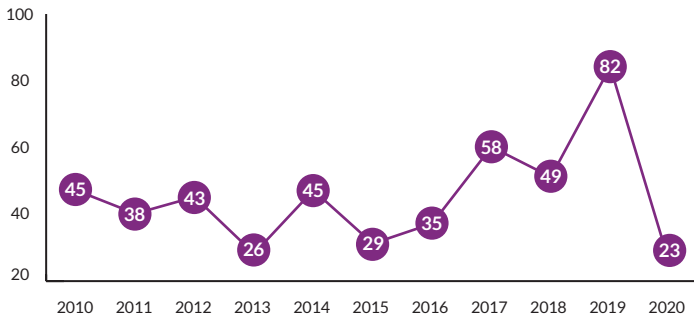
수강료 우대

정회원은 수강료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은 추가로 25% 할인된다.

가입년도	신규가입수
2010	45명
2011	38명
2012	43명
2013	26명
2014	45명
2015	29명
2016	35명
2017	58명
2018	49명
2019	82명
2020	23명

정회원 가입자 년도별 변화

단위:명



☐ 시설장비

공간 현황

※ 공간 대여는 정회원 이수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단, 상영관은 일반회원도 가능)

시 설	구분	단위	금액(원)	적용기준
디지털스튜디오	사용료	4시간	40,000	실별기준
음향녹음실	사용료	4시간	20,000	실별기준
전문편집실	사용료	4시간	10,000	1명기준
일반편집실	사용료	4시간	5,000	1명기준
디지털교육실	사용료	4시간	5,000	1명기준
강의실	사용료	4시간	10,000	실별기준
상영관	사용료	4시간	40,000	실별기준

기자재 현황

※ 기자재 대어는 정회원 이수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되며, 사용료는 1일 기준입니다.

N	분류명	장비명	사용료 (원)	비고
1	촬영장비	블랙매직 Pocket Cinema Camera 6K	제작지원용	신규
2	촬영장비	PMW-Z190V	40,000	신규
3	촬영장비	SONY HandyCam FDR-AXP55 4K	10,000	
4	촬영장비	Cannon G7x markII	10,000	
5	촬영장비	캐논 6D EF 24-105mm 1:4 L	20,000	
6	촬영장비	SONY HDR-MV1	10,000	
7	촬영장비	캐논 70D EF-S 18-55 stm	20,000	
8	촬영장비	PMW EX1	40,000	
9	촬영장비	Sony Z5	30,000	
10	촬영보조장비	ATOMOS 닌자 V 프리뷰모니터 5인치	20,000	신규
11	촬영보조장비	랜파트 숄더리그킷	제작지원용	신규
12	촬영보조장비	DJI 오즈모 모바일2	5,000	신규
13	촬영보조장비	숄더리그 sk-2	30,000	
14	촬영보조장비	미니 스테디캠 Aoka	5,000	
15	촬영보조장비	필드모니터 17인치	10,000	
16	촬영보조장비	메모리 레코딩 유닛	5,000	
17	촬영보조장비	EX1 트라이포드	3,000	
18	촬영보조장비	Z5 트라이포드	3,000	
19	촬영보조장비	A1N 트라이포드	3,000	
20	촬영보조장비	HF20 트라이포드	2,000	
21	촬영보조장비	카메라 스테빌라이저	5,000	
22	촬영보조장비	Wide Lens (EX1)	5,000	
23	촬영보조장비	Wide Lens (Z5)	5,000	
24	조명장비	Kino 2ft 4bank	25,000	
25	조명장비	팅스텐 650w 프레넬	10,000	
26	조명장비	DEDO Light	15,000	
27	조명장비	쥬피터	5,000	
28	조명장비	오토폴	1,000	
29	조명장비	반사판(소)	500	
30	조명장비	반사판(5컬러) 120cmx180cm	1,000	신규

N	분류명	장비명	사용료 (원)	비고
31	녹음장비	Sony UWP-D26	5,000	신규
32	녹음장비	BOOM SET	3,000	
33	녹음장비	휴대용레코더 Zoom H6	10,000	
34	녹음장비	중급 무선마이크 uwp-v1	3,000	
35	녹음장비	콘덴서마이크(CM400)	1,000	
36	녹음장비	Zoom 4	3,000	
37	녹음장비	고급 헤드폰(MDR7506)	1,000	
38	녹음장비	고급 헤드폰(Pro 550)	1,000	
39	녹음장비	초급 헤드폰(Cresyn C510H)	500	
40	기타장비	이동스크린 80'	3,000	

㉔ DVD자료 현황

전체 DVD 보유 작품 수

1,885편

구분	한국작품	해외작품	계
다큐멘터리	89	90	179
애니메이션	79	483	562
영화	331	813	1,144
총계	499	1,386	1,885

도서 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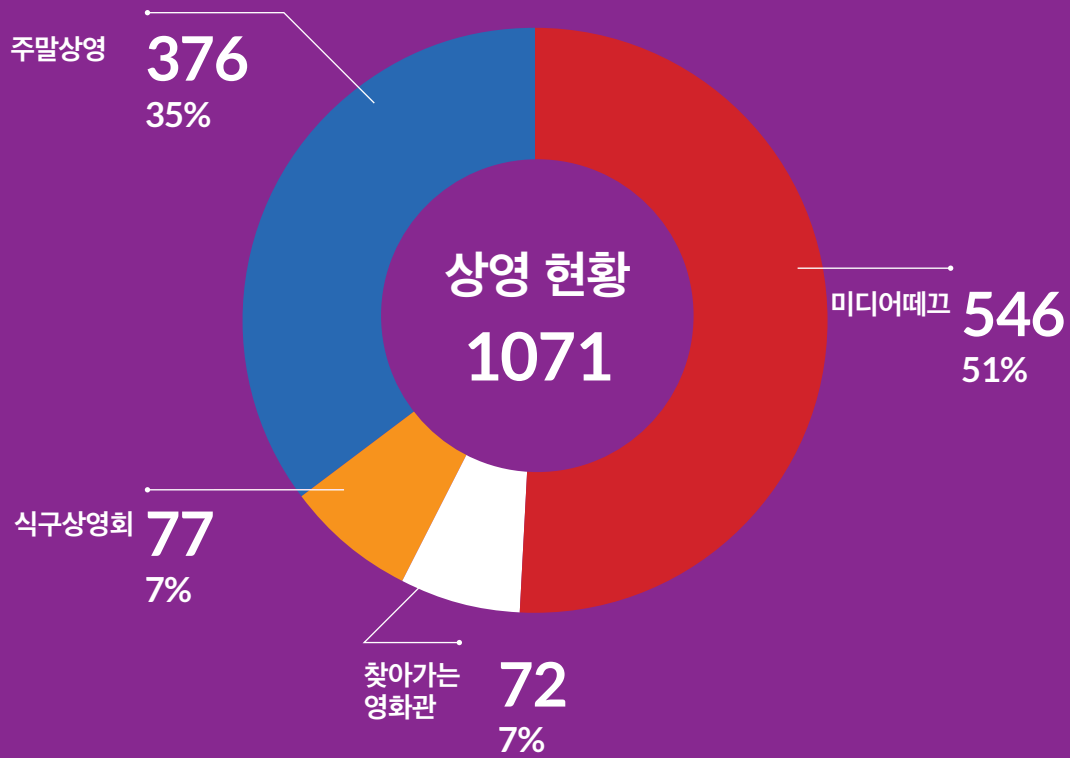
전체 도서 보유 수

197권

10 상영 현황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상영 사업을 2월까지지만 진행할 수 있었다.

단위:명





2

코로나로 바뀐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① 미디어로 코로나 19 극복하기

2020년 2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대면 활동이 중단되었다. 학교, 도서관, 영화관, 직장 모두 닫혔다. 대구부터 시작해서 서울, 강릉까지 전국 곳곳의 미디어센터가 휴관했다. 영화제작도 멈췄고, 독립영화관에도 관객이 끊겼다. 동아리 활동도 중단해야 했다. 미디어 교육자들도 강의 활동을 멈췄다. 미디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부랴부랴 일정을 늦췄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언제 미디어센터를 열어야 할지, 만약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몸을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하기’ 위해 미디어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코로나 19 대응 간담회를 열어 미디어센터 간 고민을 나누고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디어센터 별로 활동을 시작했다. 학교 교사와 문화 강사를 위한 온라인 수업 소프트웨어 안내 교육, 코로나 19를 대처하는 일상을 담은 팟캐스트, 재택근무 근로자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안내 교육, 온라인 장기자랑 대회, Vlog 제작 교육, 독립영화 온라인 상영회, SNS 라이브 중계단 운영 등.

집 안에만 있느라 답답했던 시민들이 온라인 수업에 반응했다. 덜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했던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을 들었다.

미디어 활동가, 미디어교육자는 미디어센터를 구성하는 큰 요인 중 하나다. 코로나 19 사태로 갑자기 활동이 중단되니, 미디어 활동가와 교육자는 갈 길을 잃었다. 미디어센터가 이 중요한 인



적자원을 최대한 지원해야 이후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미디어교육자 대상 온라인 수업 방법 교육, 미디어활동가 대상 SNS 활동 교육, 지역 문화인 생계 지원을 위한 라디오 특별 출연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코로나 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만이 답일까 고민했다. 미디어센터들은 소규모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시작했다. 마을신문 제작 교육, 온라인으로 함께 글쓰기, 마을 팟캐스트 지원, 마을 드라이브 인 야외 상영. 특히 마을미디어는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는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허경 이사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미디어센터가 작은 것부터 가능한 시도를 하고, 함께 공유하며,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한 공동학습을 진행하는 것 등을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 미디어/영화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비대면 사회가 되고,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 많아졌다. 정부 다섯 개 부처에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융복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온택트 사회, 사이버성폭력, 가짜뉴스 등 여러 미디어 문제에 당면했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보는 관점도 교육해야 한다. 그를 위해 미디어교육 또한 미디어리터러시 관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영화 리터러시 특화 교육자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2021년에는 강원영상위원회,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미디어리터러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시	일정	교육주제	강사	소속
1	11월 10(화) 10:00~13:00	오리엔테이션 국내외 미디어교육의 역사 및 미디어교육 정책 환경의 변화	김지현	독립미디어연구소
2	11월 17(화) 10:00~13:00	영화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 및 구성 내용	김희영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3	11월 24(화) 10:00~13:00	국내 영화 리터러시 교육 현황	김민재	진주시민미디어 센터 대표
4	12월 1일(화) 10:00~13:00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기획 및 평가, 커리큘럼 작성 방법	경희령	완주미디어센터
5~7	12월 8일(화)~ 12월 22일(화) 10:00~13:00	교육 참여자별로 팀별 영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발표, 피드백	김지현	독립미디어연구소

③ 지역 기관 온라인 인프라 지원



지역기관들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어,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 기관들은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지만 인프라가 없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영동지역의 유일한 미디어센터로서 인프라 지원과 온라인 활동 멘토링 지원을 했다. 온라인 수업 제작 요청도 물밀 듯 들어와, 온라인 수업 스튜디오 자문도 했다. 특히 공익단체는 온라인 수업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 방법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번호	지원기관명	내용	지원항목	수혜인원
1	강릉시평생학습관	온라인교육 진행 및 방송 스튜디오 제작 컨설팅	컨설팅	
2	강릉시립도서관	<날마다 문화가 있는 날> 콘텐츠 제작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촬영장비	60
3	강릉시립도서관	<문화의집 랜선 동네배움터>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촬영장비	80
4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청소년 단오축제 D.Y.F "단오온라인골든벨"> 온라인 방송 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촬영장비	8
5	강원도교육연수원	<“배움과 성장을 위한 토요강좌(17)”>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6
6	강릉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강원” 3차 비대면 공연>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1회차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1,662
7	강릉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강원” 3차 비대면 공연>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2회차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8	울곡연구원	<제2회 울곡인문포럼>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	방송 장비	194
9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5
10	강릉문화원	<2020 강원지역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 장비, 컨설팅	137

번호	지원기관명	내용	지원항목	수혜인원
1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릉시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행사 "2020 청소년 어게인!">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1회차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2,332
12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릉시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행사 "2020 청소년 어게인!">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2회차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13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릉시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행사 "2020 청소년 어게인!">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3회차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14	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 강릉시 온라인 복지한마당> 온라인 방송 장비 지원	방송 장비	222
15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	<작당모의 문화도시 참여예산제 라이브 심사> 라이브 영상 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 장비	170
16	정선군 여성청소년과	<온라인강좌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	수업, 컨설팅	27
17	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	<온라인강좌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	수업, 컨설팅	20
18	옥천초등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13
19	강릉중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9
20	강릉여자고등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7
21	해람중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14
22	중앙초등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6
23	강동초등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10
24	경포고등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6
25	강릉생명의숲	공익단체 온라인 활동 지원	수업, 컨설팅	10
26	강릉여성의전화	공익단체 온라인 활동 지원	수업, 컨설팅	8
27	강원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강릉분소	공익단체 온라인 활동 지원	수업, 컨설팅	10
28	강릉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강사 역량강화교육	수업, 컨설팅	7
29	강원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강릉분소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릉문화원 강원도교육연수원	스위치를 활용한 온라인방송 장비 연수	수업, 컨설팅	18
30	강릉시 미디어교육자	<온라인강좌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수업, 컨설팅	4

④ 지역 기관 연계 포스트 코로나 대응

많은 학자가 이후에도 코로나 19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리라 예측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기관들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강릉생명의숲과는 숲 체험과 미디어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인증받기 위한 준비를 했다. 프로그램을 인증받은 후에는 더 많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다. 성차별적인 콘텐츠에 접촉하기 쉬워졌다. 성평등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강릉여성의전화,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⑤ 코로나 대응 온라인 수업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잠정적으로 수업을 취소하고 연기했다. 언젠가 끝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기다릴 수 없어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센터의 수업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었으며,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수업의 역할을 고려하여 만든 수업도 있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발 빠르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센터였다.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왕초보 편집교육	정재빈	224	4.29~5.30	3시간x1차시x2회
장비활용교육	교육자 14명	60	5.2~9.30	3시간x1차시x14회
스마트폰 활용 교육	최미영	196	5.2~5.30	3시간x1차시x2회
스마트폰활용-키네마스터	허규연	219	5.12	3시간x1차시x1회
나만의 방송만들기(팟캐스트)	조유진	45	5.19	3시간x1차시x1회
시민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독립영화가 좋다	남궁연이 박은희 안예솔 조유진 한은진	158	5.20~10.17	2시간x1차시x6회
나도 유튜버 되기	홍정완	67	5.21	3시간x1차시x1회
(기초)영상촬영	홍정완	90	5.22	3시간x1차시x1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교육	정재빈	79	5.24~10.17	3시간x1차시x4회
미디어 리터러시	한은진	4	7.16~10.15	3시간x1차시x4회
1인미디어 스토리텔링	박은희	10	7.29	3시간x1차시x1회
온라인교육을 위한 기관 장비연수	조남현	4	8.4~8.5	3시간x2차시x2회
온라인교육을 위한 예술인 콘텐츠제작교육	정재빈 조남현 한은진	50	8.24~9.16	3시간x7차시x1회
스마트폰 활용교육(블로)	장해영	63	9.10~10.8	3시간x1차시x2회
실버, 온라인시대 도전기	최미영	10	9.22~10.20	3시간x1차시x2회
온라인교육을 위한 예술인 콘텐츠제작교육	정재빈 조남현 한은진	20	10.7~10.11	3시간x8차시x1회
슬기로운 미디어생활 (유아,초등)	고수정	10	11.28~12.12	2시간x2차시x2회

㉔ 소규모 수업&컨설팅 활성화



오프라인,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참여자를 소규모로 모집해야 했다. 작은 그룹 대상 강의가 활발해졌다. 작은 그룹 대상 교육의 장점을 발견했다. 참여자, 미디어센터, 교육자와의 관계가 긴밀해졌다.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었다. 빠르게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 그에 맞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강릉생명의숲과 연계한 ‘푹푹 프로젝트’가 그 예다.

또 새로운 교육방식을 접목할 수 있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릴레이 제작 형식을 빌렸다. 기획하고 넘기면 다음 사람은 촬영하고, 다음 사람은 편집해서 작품을 완성했다. 참여자 주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자가 스스로 제작하고 교육자는 컨설팅을 했다. 각 참여자에 맞춰 컨설팅할 수 있었다. ‘중앙고, 명륜고, 얼쓰어스-컨설팅’ ‘숲 일자리 영상제작교육’이 그 예다. 비대면으로, 소규모로 모여야 한다는 한계가 영상 문화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줬다.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푹푹 프로젝트	유민아	15	7~8	기간 내 상시 진행
푹푹 프로젝트2	조남현 윤희경 방준극	9	6.21~ 8.9	2시간x 6차시x1회
푹푹 프로젝트3: 심화학습	이혜림 유민아	12	9.22~ 11.29	기간 내 상시 진행
숲일자리 영상제작교육	박소영 이혜림 유민아	16	10~12	기간 내 상시 진행
중앙고. 명륜고. 얼쓰어스-영상제작 컨설팅	이혜림 유민아	15	10~11	2시간x 1차시x1회

㉞ 노인미디어교육

노인 세대의 여가문화 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영상 제작 욕구도 늘어났다. 교육 개설 요구가 증가하였다. 개설과 동시에 모집이 마감될 정도였다. 추가 교육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 19 사태로 활동 제한이 늘어나면서 미디어 교육 문의가 늘었다. 센터는 온라인교육을 개설하고 당사자의 요구에 발맞춰나갔다. 온라인 줌 활용 교육, 유튜브 교육, 온라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개설했다.

노인 세대가 여가 시간을 디지털 기기에 많이 사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에 소외되어 있다.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들은 교육을 수강하여도 후속 지원 없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이러한 노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센터는 그 사업을 받아 5인 이하 소규모그룹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온라인)스마트폰 활용 교육	최미영	196	5.2~5.30	3시간x1차시x2회
(온라인)스마트폰활용-키네마스터	허규연	219	5.12	3시간x1차시x1회
스마트폰으로담아보는나의삶(상/하반기)	최미영 남궁연이	10	6.16~11.28	2시간x8차시x2회
실버다큐제작단 시즌2	한은진 허규연	5	7.7~8.27	2시간x15차시x1회
소리로 담는 인생(팟캐스트)	김은경 조유진	6	7.10~11.13	2시간x10차시x1회
내가 살아온 강릉이야기(영상 제작)	최미영	3	7.23~10.29	2시간x15차시x1회
(온라인)실버, 온라인시대 도전기	최미영	26	9.22~10.20	3시간x1차시x2회
노인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 '소규모 Pre STUDY'	김은경 장해영 조유진 최미영 최돈태 한은진	4	11.6~11.30	3시간x4차시x7회

㉔ 장애인 미디어문화향유사업



미디어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코로나 19 대유행이라는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 마스크 때문에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기도 힘들어졌고, 대면활동을 하기 어려워 활동지원 서비스가 줄었다. 건강 사각지대에 있어, 외부활동을 하기 어렵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장애인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소규모 그룹을 지원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영화제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구성했다. 장애인식 개선 영화를 제작하였다. 영화 제작동아리의 경우는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지역에서 온라인상영회를 진행했다. 학교 청소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기획, 운영하였다. 특수교육 청소년들에게 사진미디어, 단편영화, 뮤직비디오제작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했다. 미디어 활동을 통해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수업하며,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없던 지난해와 비교해 미디어 활동 욕구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체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강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YOU TV,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영상제작)	심명진 남궁연이	6	6.9~7.30	2시간x15차시x1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지부	함께놀자 (사진&전시회)	심명진 진혜원	10	7.15~10.10	2시간x15차시x1회
해람중학교	미디어 어깨동무- 5분 영화 만들기	김은경 조유진	5	10.8~11.30	2시간x9차시x1회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프레임 속 나의 학교 이야기	조유진	3	7.7~11.10	2시간x7차시x1회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일상 Vlog 제작 교육	조유진	3	12.1~12.22	2시간x4차시x1회
경포고등학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내 손 안의 세상: 스마트폰 영상제작	심명진 진혜원	8	11.4~27	2시간x3차시x1회
강릉여자고등학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사진:너와 나의 느낌 이야기	조유진 문경화	8	11.9~11.20	2시간x3차시x1회

㉓ 지역아동센터 미디어문화향유사업

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은 문화여가생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방과 후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로는 지역아동센터 활동도 제한 받고 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미디어활용교육을 기획했다. 하지만 진행을 해도 관찮은지 오랜 기간 심사숙고했다. 사회 분위기와 지침을 반영해야 했다. 오프라인 교육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단기간 교육을 진행했다. 짧은 시간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해, 강도 높은 활동을 진행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유튜브 교육, 장비교육, 편집프로그램교육을 진행하며 영상 제작 교육을 했다.



단체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파란바다지역아동센터	우리도 유튜버가 되어볼래요	허규연 한은진	11	6.16~12.20	2시간x17차시x1회
소망지역아동센터	영상캠프-결정은어려워	김은경 김수민	11	8.13	8시간x1차시x1회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영상캠프-결정은어려워	김은경 김수민	13	8.20	8시간x1차시x1회

10 소규모, 온라인 상영사업

일반 이용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프로그램은 상영 프로그램인 주말상영과 미디어떼끄다.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는 이전의 상영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식구 식구 상영회> 상영관을 빌려 드립니다.



한 식구 단위로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기 전, 6월~8월 세 달간 총 22가족, 77명이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을 찾았다.

그동안 미디어센터에서는 10인 이상 단체나 학교,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의 영화 상영을 지원하고 있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강릉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극장 나들이가 부담스러웠는데 가족과 함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볼 수 있어 무엇보다 좋았다.”

_시민 리뷰

누구나 시민영상제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누구나 시민 영상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 상영이 아닌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상영을 진행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수료작 5편과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에서 진행한 독립영화 제작 워크숍 및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에서 만들어진 영상 5편 총 10편을 선정해 상영했다. <나도 영화큐레이터> 수업을 통해 배출된 시민 모더레이터가 영상을 만든 감독을 초청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지역에서 영상을 만들어 상영할 곳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상영해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할 수 있어 좋았다.”

_시민 리뷰

<2020지역미디어센터시민 제작영상 공동상영전>



지역 미디어센터에서 지원한 시민 제작 영상을 아카이빙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 미디어센터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상영전 개최가 힘들어졌다. 대안으로 2차 창작물 공모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 동아리 및 시민들이 리뷰·비평문을 작성하거나 리뷰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나도 영화큐레이터> 교육에서 배출된 시민 큐레이터 세 명이 참가했다.



3

미디어 교육

① 상설강좌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정재빈 이한솔	13	2.11~2.20	2시간x6차시x1회
초등 미디어 성교육	한은진	6	4.24~5.7	1시간x1차시x2회
낭만살롱-팟캐스트 시즌2	박은희 조유진	4	6.10~7.22	2시간x7차시x1회
큐레이터 양성과정	조세영	6	6.13~9.26	2시간x10차시x1회
영상제작-함께 만드는 이야기	김준기	6	6.13~8.22	2시간x10차시x1회
나만의 감성 브이로그 만들기 (상반기)	한은진 조유진	6	6.16~7.23	2시간x7차시x1회
왕초보 편집교육	정재빈 장해영	6	6.25~10.23	2시간x2차시x2회
시민영상제작단	김준기 조남현	4	7.24~10.16	2시간x10차시x1회
나만의 감성 브이로그 만들기 (하반기)	정재빈 방준극 김준기	3	8.14~11.27	2시간x7차시x1회
낭만살롱-팟캐스트 시즌3	김은경 조유진	5	10.1~11.12	2시간x7차시x1회
영상제작자를 위한 디자인	박정배 조유진	6	10.13~10.16	2시간x4차시x1회
다빈치리졸브로 배우는 색보정	이마리오	6	11.21~12.12	4시간x4차시x1회

② 코로나 대응 교육

온라인교육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왕초보 편집교육	정재빈	224	4.29~5.30	3시간x1차시x2회
장비활용교육	교육자 14명	60	5.2~9.30	3시간x1차시x14회
스마트폰 활용 교육	최미영	196	5.2~5.30	3시간x1차시x2회
스마트폰활용-키네마스터	허규연	219	5.12	3시간x1차시x1회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나만의 방송만들기(팟캐스트)	조유진	45	5.19	3시간x1차시x1회
시민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독립영화가 좋다	남궁연이 박은희 안예솔 조유진 한은진	158	5.20~10.17	2시간x1차시x6회
나도 유튜버 되기	홍정완	67	5.21	3시간x1차시x1회
(기초)영상촬영	홍정완	90	5.22	3시간x1차시x1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교육	정재빈	79	5.24~10.17	3시간x1차시x4회
미디어 리터러시	한은진	4	7.16~10.15	3시간x1차시x4회
1인미디어 스토리텔링	박은희	10	7.29	3시간x1차시x1회
온라인교육을 위한 기관 장비연수	조남현	4	8.4~8.5	3시간x2차시x2회
온라인교육을 위한 예술인 콘텐츠제작교육	정재빈 조남현 한은진	50	8.24~9.16	3시간x7차시x1회
스마트폰 활용교육(블로 실버, 온라인시대 도전기)	장해영 최미영	63 10	9.10~10.8 9.22~10.20	3시간x1차시x2회 3시간x1차시x2회
온라인교육을 위한 예술인 콘텐츠제작교육	정재빈 조남현 한은진	20	10.7~10.11	3시간x8차시x1회
슬기로운 미디어생활 (유아,초등)	고수정	10	11.28~12.12	2시간x2차시x2회

제작 컨설팅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팟팟 프로젝트	유민아	15	7~8	기간 내 상시 진행
팟팟프로젝트2 (비숙박 캠프+교육)	조남현 윤희경 방준극	9	6.21~8.9	2시간x6차시x1회
팟팟 프로젝트3:심화학습	이혜림 유민아	12	9.22~11.29	기간 내 상시 진행
숲일자리 영상제작교육	박소영 이혜림 유민아	16	10~12	기간 내 상시 진행
중앙고. 명륜고. 얼쓰어스-영상 제작 컨설팅	이혜림 유민아	15	10~11	2시간x15차시x1회

노인 대상 교육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온라인)스마트폰 활용 교육	최미영	196	5.2~5.30	3시간x1차시x2회
(온라인)스마트폰활용-키네마스터	허규연	219	5.12	3시간x1차시x1회
스마트폰으로담아보는 나의삶(상/하반기)	최미영 남궁연이	10	6.16~11.28	2시간x8차시x2회
실버다큐제작단 시즌2	한은진 허규연	5	7.7~8.27	2시간x15차시x1회
소리로 담는 인생(팟캐스트)	김은경 조유진	6	7.10~11.13	2시간x10차시x1회
내가 살아온 강릉이야기 (영상제작)	최미영	3	7.23~10.29	2시간x15차시x1회
(온라인)실버, 온라인시대 도전기	최미영	26	9.22~10.20	3시간x1차시x2회
노인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 '소규모 Pre STUDY'	김은경 장해영 조유진 최미영 최돈태 한은진	4	11.6~11.30	3시간x4차시x7회

소외계층 대상 교육

단체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강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YOU TV,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영상제작)	심명진 남궁연이	6	6.9~7.30	2시간x15차시x1회
파란바다 지역아동센터	우리도 유튜버가 되어볼래요	허규연 한은진	11	6.16~12.20	2시간x17차시x1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지부	함께놀자 (사진&전시회)	심명진 진혜원	10	7.15~10.10	2시간x15차시x1회
강릉정보공업 고등학교	프레임속 나의 학교 이야기	조유진	3	7.7~11.10	2시간x7차시x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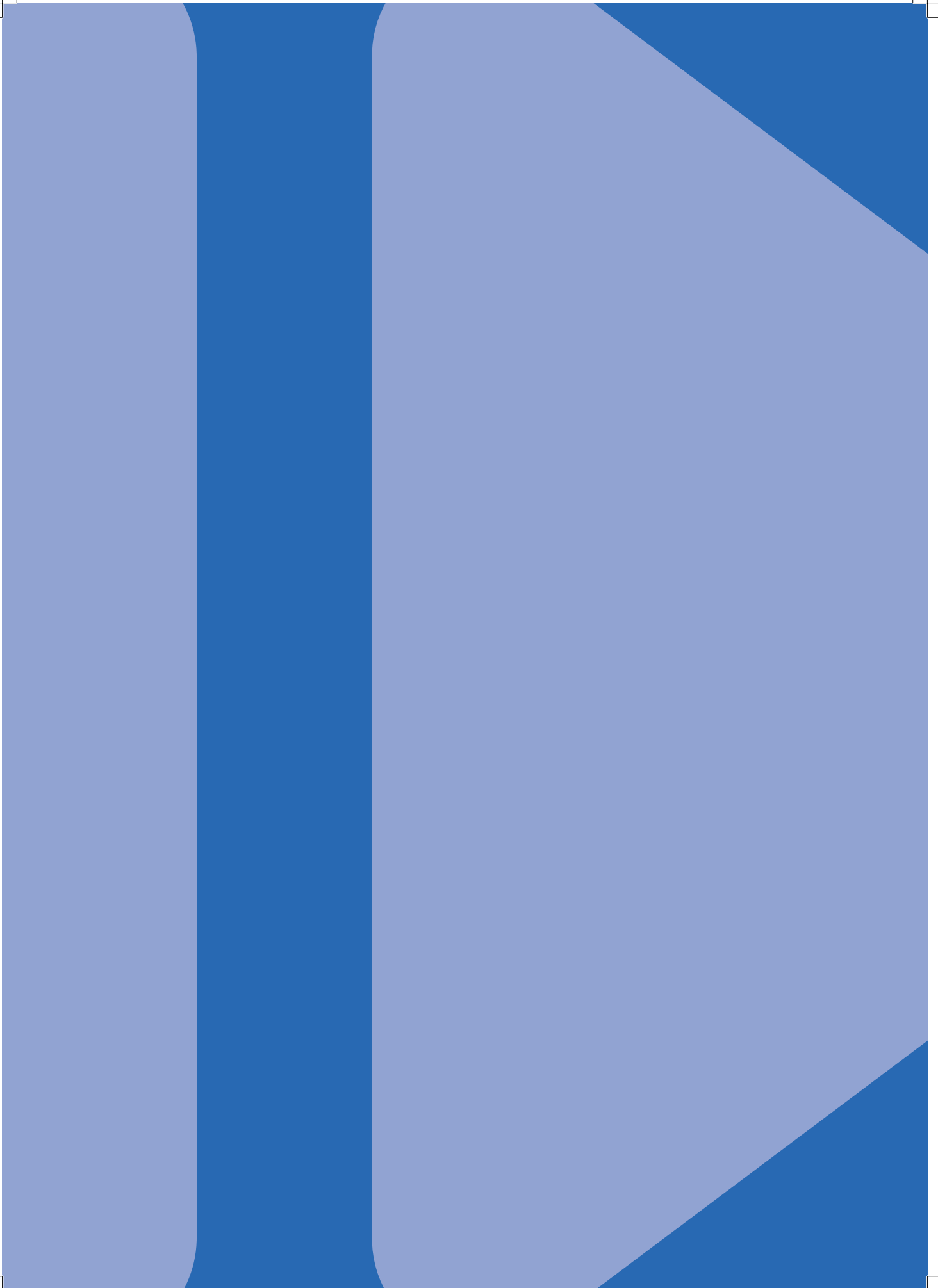
단체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소망지역아동센터	영상캠프 -결정은어려워	김은경 김수민	11	8.13	8시간x1차시x1회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영상캠프 -결정은어려워	김은경 김수민	13	8.20	8시간x1차시x1회
해람중학교	미디어 어깨동무 -5분 영화 만들기	김은경 조유진	5	10.8~11.30	2시간x9차시x1회
경포고등학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내 손 안의 세상: 스마트폰 영상제작	심명진 진혜원	8	11.4~11.27	2시간x3차시x1회
강릉여자고등학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사진:너와 나의 느낌 이야기	조유진 문경화	8	11.9~11.20	2시간x3차시x1회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일상 Vlog 제작 교육	조유진	3	12.1~12.22	2시간x4차시x1회

③ 공동체 미디어교육

단체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강원도교육청 강릉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미디어체험프로그램 (영상제작, 사운드 등)	김하진 정재빈 조유진 한은진	5	1.16~1.17	2시간x4차시x1회
작은학교	I can do it (영상제작교육)	허장휘 조유진	7	6.5~12.18	2시간x13차시x1회
강릉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어소울 show	장해영 이혜림	10	7.8~11.12	2시간x14차시x1회
강릉정보공업고등 학교	시나리오 수업	김준기	10	7.28~8.11	3시간x3차시x1회
강릉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아동방학교육	유민아 박송희 최지영 박소영 남궁연이	9	8.5~8.14	2시간x4차시x1회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중앙동도시재생 -유튜브 교육	한은진 김건영	12	10.22~12.3	2시간x6차시x1회
강릉생명의숲	마을기록프로젝트 (라디오방송제작)	최재현 진혜원	6	10.29~12.10	2시간x7차시x1회
강원도교육청 강릉교육지원청	민주시민 교육 -하슬라중학교	이혜리 김건영	11	9.14~11.30	2시간x12차시x1회
강원도교육청 강릉교육지원청	민주시민 교육 -유천초등학교	김준기 임현정 최지영 고수정 박송희 김경림	75	10.5~12.10	2시간x7차시x3회

④ 연구개발

강좌명	강사	인원	기간	회차
민주시민 교육 양성 과정	유민아	9	7.25~8.16	3시간x5차시x1회
미디어리터러시 전문가 양성교육	김희영 김지현 김민재 경희랑	17	11.10~12.22	3시간x7차시x1회



4

제작지원

2020년 제작지원사업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 기본 목적 중 하나는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 문화와 영상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0년엔 코로나 19로 인해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이 적어졌다.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는 창작자들에게 더 신경을 썼다. 사전제작 과정부터 후반 제작 과정에 이르기까지 제작비지원, 장비 지원, 공간지원, 자문 등 각종 제작지원을 했다.

코로나 19로 전국적으로 독립영화 제작이 줄어들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2020년에도 독립영화제작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독립영화인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올 한해 제작 지원한 독립영화는 총 9편으로, 작년(14편)보다 줄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영화제작 활동이 식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다. 지역영화인들의 활발한 창작 의지와 제작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에도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영화인들의 제작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① 독립영화제작지원

강릉시에서 장비 구매 지원을 통해 2019년 구매한 촬영 장비와 2019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장비 지원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촬영 및 조명 장비를 지역 독립영화인들에게 지원했다. 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은 제작비 지원사업과 장비공간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연중 상시로 지원하며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 중인 영상인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진행해오던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에도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단편 4편에 제작비지원을 했다. 독창성 및 우수성, 시나리오 완성도, 신청자 역량 및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19년 강릉국제영화제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취뢰>와 <봄눈>이 2020년 독립영화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돼 강릉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뤘다. 나머지 두 편의 선정 작품인 <강태공 부부의 삶>, <편지>도 2021년에 진행될 각종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제작비지원

강태공 부부의 삶



구분	장르	길이	감독	초청내역
단편	다큐멘터리	20분	최미영	2021년 영화제 출품 예정

오늘도 강태공은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서 모래알 같은 밥알 2숟가락을 겨우 먹고, 한 움큼의 약을 삼키면서 일과를 시작한다. 곧 쓰러질 듯한 아내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낚싯바늘 만드는 작업을 돕는다. 어느 날, 50대 후반의 남자와 여자가 낚싯바늘 제조 공정을 배우겠다고 집을 찾아온다.

쥐리



구분	장르	길이	감독	초청내역
단편	드라마/스릴러	19분	홍연이	2020년 강릉 국제영화제

방학이 끝나기 전에 돌아온다던 엄마가 돌아오지 않은 어느 날, 집에서 쥐가 나오기 시작한다. 한빈은 동생인 하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쥐에 대항하여 음식을 가지러 간다. 하지만 쥐는 공간을 확장하고, 마찬가지로 쥐가 무서운 한빈은 방으로 도망친다. 한빈은 방에서 동생의 배고픔과 목마름, 자신의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 간다.

봄눈



구분	장르	길이	감독	초청내역
단편	드라마	18분	조덕진	2020년 강릉 국제영화제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갈까 봐 항상 불안해하는 열세 살 소년 대진. 매일 밤 쏟아지는 줄음을 참아가며 엄마가 자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잠이 드는 대진. 그런 탓에 낮에는 늘 즐기 일쑤다. 어느 첫눈 오던 날, 엄마는 집을 떠난다.

편지

편지



구분	장르	길이	감독	초청내역
단편	드라마		이신우	2021년 영화제 출품 예정

승우에게 친구의 부고 소식이 들려온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생각한 찬욱의 죽음. 그가 남긴 편지 중에서 승우에게 온 편지는 없다.

장비·공간지원(8편)

구분	장르	제목	감독
단편	드라마	봄눈	조덕진
단편	드라마	다큐 우리는	최지영
단편	다큐멘터리	강태공 부부의 삶	최미영
단편	다큐멘터리	느낌표와 물음표, 그 사이	박송희
단편	드라마	대결	조덕진
장편	다큐멘터리	시간의 주름(들)	이마리오
단편	드라마	숨대롱	정민주
단편	드라마	편지	이신우

② 시민영상제작지원

강릉시민들의 미디어 접근을 높이기 위해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 공간과 장비 등 제작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중 상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이다.

시민영상제작지원(12편)

미디어를 제작하려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중 상시 제작 지원사업이다. 제작 컨설팅, 촬영 장비와 후반 작업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번호	신청자	단체명	지원작품명	제작지원품목
1	홍혜주	개인	유튜브 관련 오디오북 제작	• 스튜디오 공간
2	신수이	개인	사진 작품 활동	• 캐논 80D / 삼각대 / DEDO Light
3	정재빈	개인	사진 작품 활동	• 캐논 80D
4	이신우	개인	슬기로운 집콕 생활 영상	• 소니 VG30H / 삼각대 / Zoom H6 / 와이어리스 / 헤드폰
5	최소연	개인	숲속의 식탁	• 소니 VG30H / 삼각대
6	이한서		광복 75주년, 대한이 살았다	• 소니 VG30H / 삼각대
7	김수민	개인	9와 0 사이	• Zoom H6
8	조찬휘	개인	공원의 친구들 ASMR	• Zoom H6

번호	신청자	단체명	지원작품명	제작지원품목
9	이신우	개인	“내일”소개 영상제작	• 소니 VG30H / 삼각대 / 와이어리스 / 헤드폰
10	정재빈	개인	제목 미정	• 캐논 80D
11	윤희경	강릉생명의 숲	나무심기 행사 기록	• 소니 AXP55_4K / 삼각대 / 와이어리스
12	최윤정	개인	심봉사 여짜오되	• 소니 AXP55_4K / 삼각대

동아리제작지원(4편)

동아리 제작 지원은 지역의 문화·예술·미디어 관련 동아리들의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 작업에 필요한 교육, 공간, 장비, 컨설팅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은 줄었다. 하지만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나기>, <107_사진동아리>, <죽돌이 삼총사>, <시 낭송 모임> 등 성인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갔다.

번호	작품명	신청동아리	감독	제작지원품목
1	마음접기	소나기	최지영	• 소니 NX5N, 삼각대 외
2	개인 사진전	107_사진동아리	조유진 외	• 캐논 6D, 노트북 외
3	죽돌이삼총사	죽돌이삼총사		• 편집실
4	안녕 모스크바	카톨릭관동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이한솔	• 소니 NX5N, 삼각대 외

공간지원(36편)

미디어센터 공간 이용을 원하는 단체와 동아리, 모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공간, 촬영 장비, 후반 작업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번호	단체명(개인)	신청자	공간	이용인원	내용
1	김성희	김성희	일반편집실	1	웹툰 작업<나, 김마리아>
2	손명남	손명남	음향녹음실	2	작곡 노래 녹음
3	107 사진동아리	강태욱	스튜디오	4	사진동아리 회의 진행 및 장비교육
4	홍혜주	홍혜주	음향녹음실	1	소설 오디오북 녹음
5	영화 다반사	남궁연 이	강의실	5	영화큐레이터 모임:영화를 본 이후 이야기 및 회의
6	단오인형극단	박희성	음향녹음실	7	단오인형극 녹음
7	김성희	김성희	일반편집실	1	영상작업 <로드 워커>
8	107 사진동아리	조유진	스튜디오	4	사진동아리 회의 진행 및 장비교육
9	손명남	손명남	음향녹음실	11	작곡 노래 녹음
10	소나기	최지영	강의실	4	영화 시나리오 사전모임
11	이명재	이명재	일반편집실	1	VHS 변환 시민아카이빙
12	소나기	이한규	강의실	4	영화시나리오 사전모임
13	이명재	이명재	일반편집실	1	VHS 변환 시민아카이빙
16	소나기	이한규	강의실	4	영화시나리오 사전모임
17	조서희	조서희	일반편집실	1	VHS 변환 시민아카이빙
18	소나기	이한규	강의실	4	영화시나리오 사전모임
19	김성희	김성희	일반편집실	1	메탄올 시력 상실된 청년들의 이야기_만화작업
20	소나기	이한규	강의실	4	영화 시나리오, 콘티 작업
21	강원도교육연수원	박종일	스튜디오	8	실시간 쌍방향 화상 연수
22	소나기	최지영	강의실	5	영화 시나리오 사전 모임
23	김성희	김성희	일반편집실	1	메탄올 시력 상실된 청년들의 이야기_만화작업
24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스튜디오	10	교육 영상제작

번호	단체명(개인)	신청자	공간	이용인원	내용
25	이해림	이해림	음향녹음실	2	개인 작곡 음악녹음
26	소나기	최지영	강의실	5	영화 시나리오 사전 모임
27	김우형	김우형	일반편집실	1	영상 디지털 변환 시민아카이빙
28	소나기	최지영	일반편집실	1	영화'왜 우리는'가편집
29	정지후	정지후	일반편집실	1	VHS 변환 시민아카이빙
30	소나기	최지영	일반편집실	2	영화'왜 우리는'편집
31	강릉정보공업 고등학교	윤다희	스튜디오	5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장구민요수업, 리듬수업)
32	소나기	최지영	일반편집실	3	영화'왜 우리는'편집
33	강릉정보공업고 등학교	윤다희	스튜디오	5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장구민요)
34	소나기	최지영	전문편집실	3	영화'왜 우리는'편집
35	소나기	최지영	전문편집실	2	영화'왜 우리는'편집
36	홍영록	홍영록	일반편집실	1	VHS 변환

③ 코로나 대응 기관 온라인 인프라 지원

번호	지원기관명	내용	지원항목	수혜인원
1	강릉시평생학습관	온라인교육 진행 및 방송 스튜디오 제작 컨설팅	컨설팅	
2	강릉시립도서관	<날마다 문화가 있는 날> 콘텐츠 제작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촬영장비	60
3	강릉시립도서관	<문화의집 랜선 동네배움터>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촬영장비	80
4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청소년 단오축제 D.Y.F "단오온라인골든벨"> 온라인 방송 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촬영장비	8
5	강원도교육연수원	<"배움과 성장을 위한 토요강좌(1기)">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6
6	강릉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강원" 3차 비대면 공연>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1회차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1,662
7	강릉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강원" 3차 비대면 공연>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2회차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8	울곡연구원	<제2회 울곡인문포럼>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	방송 장비	194
9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5
10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릉시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행사 "2020 청소년 어게인!">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1회차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2,332
1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릉시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행사 "2020 청소년 어게인!">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2회차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12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릉시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행사 "2020 청소년 어게인!"> 온라인 방송 제작지원-3회차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장비	
13	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 강릉시 온라인 복지한마당> 온라인 방송 장비 지원	방송 장비	222

번호	지원기관명	내용	지원항목	수혜인원
14	강릉문화원	<2020 강원지역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 장비, 컨설팅	137
15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	<작당모의 문화도시 참여예산제 라이브 심사> 라이브 영상 지원	스튜디오(온라인방송) 방송 장비	170
16	정선군 여성청소년과	<온라인강좌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	수업, 컨설팅	27
17	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	<온라인강좌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	수업, 컨설팅	20
18	옥천초등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13
19	강릉중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9
20	강릉여자고등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7
21	해람중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14
22	중앙초등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6
23	강동초등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10
24	경포고등학교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 컨설팅	6
25	강릉생명의숲	공익단체 온라인 활동 지원	수업, 컨설팅	10
26	강릉여성의전화	공익단체 온라인 활동 지원	수업, 컨설팅	8
27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공익단체 온라인 활동 지원	수업, 컨설팅	10
28	강릉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강사 역량강화교육	수업, 컨설팅	7
29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릉문화원 강원도교육연수원	스위치를 활용한 온라인방송 장비 연수	수업, 컨설팅	18
30	강릉시 미디어교육자	<온라인강좌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수업, 컨설팅	4



5

교육사례

① 대표 미디어교육 사례

함께 영화를 보는 즐거움, <나도 영화 큐레이터>

이혜리
(미디어 교육자)

1. 기획배경

“시민... 영화프로그래머...요...?”

그렇다. 원래는 ‘큐레이터’가 아닌 ‘프로그래머’ 양성교육이었다. 수업 제안을 받고 든 첫 느낌은 ‘이걸 내가 어떻게?’였다. 수락과 거절 사이를 고민하던 차에 영화읽기에 대해 다루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상을 시작했다. 먼저 자료조사 차원에서 다른 미디어센터들이 하고 있는 시민 영화프로그래머 교육과 그분들의 활동내용을 찾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트하우스 모모의 관객 큐레이터, 인천영상위원회 별별씨네마의 시민 큐레이터 제도다. 이들 모두 기획, 상영, 해설을 포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주말엔영화’ 프로그램에 함께 할 시민들을 양성하고자 하였으므로, (매우 주관적이지만) ‘프로그래머’보다 거창한 느낌은 덜하면서도 대체 가능한 용어로 ‘큐레이터’를 선택했다.

영화 큐레이터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좋은 영화를 찾아 상영하고 해설을 통해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 일을 한다. 그러자면 좋은 영화를 알아보는 감식안이 있어야 하고, 왜 좋은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일일까?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감식안을 가지고 있다. 영화는 관객들 개개인의 모든 역사를 통해 보는 것이므로,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 관심사에 따라 매우 전문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영화적 맥락의 재구성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영화에 대한 정보는 팟캐스트부터 레거시 미디어까지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까?

교육의 역할은 경험과 관계의 형성이라고 생
 각했다. <나도 영화 큐레이터> 수업이 아니라
 면 만날 일 없었던 우리 동네 영화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어떤 영화가 나에게 준 감정을 들여다보며 그
 건 어디서 온 걸까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의 즐거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
 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여기에 기초적인 영
 화문법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컨셉으로 교육과
 정을 설계했다.

2. 운영의 실제

<나도 영화 큐레이터> 과정은 2018년 봄부터
 2019년 가을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되었는데, 교
 육목표를 비롯한 큰 틀은 유지하되 참가자들
 의 이야기를 좀더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
 그램을 조정해왔다. 이 말인즉슨 과제와 발표
 가 점차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는 것
 인데,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보여준 열의와 협조 덕에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또한 1~2기 수료생들의 '주말엔영화' 프로그램
 운영을 1년 넘게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을 반영
 해 아래와 같은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1차시는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으로, 기왕이면
 영화를 통한 첫 만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작은 장치를 마련해 보았다. 먼저 몸으
 로 하는 설문조사인 '라인게임'은, 하나의 선을
 중심으로 '예'일 경우 한 발짝 다가서고 '아니
 오'일 경우 제자리에 있는 간단한 게임으로, 영
 화 <프리덤 라이터스>에서 아이디어를 빌렸
 다.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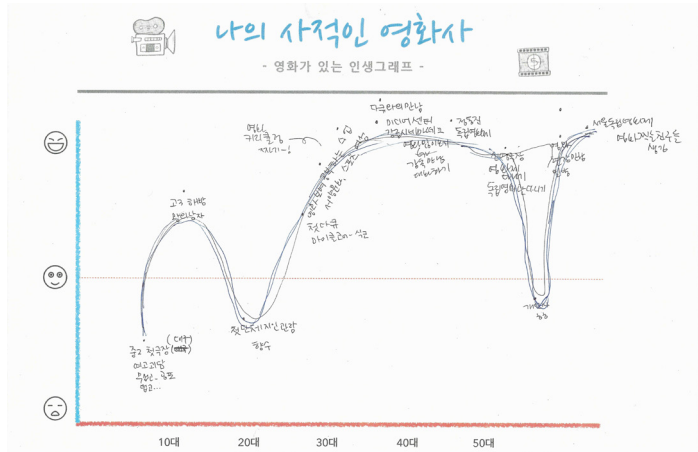
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아이스브레이
 킹 용으로 적당하다. 영화관람 패턴을 탐색하는
 질문 열 개를 준비해 라인게임을 진행했다.

진행방식(예시)

- 나는 지난달에 영화를 세 편 이상 봤다,
- 나는 외국영화보다 한국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다,
- 나는 맘에 드는 영화를 반복해서 본다 등



‘나의 사적인 영화사’는 영화로 돌아보는 인생그래프인데, 장년층 참가자들의 경우 영화 관람의 역사가 영화기술의 변천사이기도 해서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필름에서 디지털로, 단관극장에서 멀티플렉스로, 비디오테이프에서 DVD를 거쳐 넷플릭스와 왓챠에 이르는 관람환경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영화취향문진표’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영화취향을 드러내어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장르는 천차만별인데 흥미로운 지점은 참가자 대부분이 호러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영화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캐릭터, 배우 연기 등이 가장 많이 나왔고, 색깔이나 이미지, 음악이 중요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4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PC(politically correct, 정치적 올바름)를 꼽는 분들이 있었다는 점인데, 2019년 현재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를 명확히 드러내는 답변이었다.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영화토론 작품을 선정하거나 실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빛을 발했고, 그들의 적극성과 명료함이 수업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영화 큐레이터	
영화취향 문진표			
질문	답변		
1. 좋아하는 배우	이디 레드메인		
2. 좋아하는 감독	한스라 마우트, 칸네카 히로카즈		
3. 좋아하는 장르, 싫어하는 장르	드라마, 뮤지컬, 고지, 스릴러, 논리		
4. 최근 본 영화 중 추천작	〈꽃피는 달밤〉 〈사투리 여동생〉		
5. 영화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스토리, 음악, 색깔, PC		
6. 때때로 생각나는 영화	〈헤이트풀 8〉 〈베미버 드라이버〉 〈밴드스내치〉 〈버튼홀러〉		
7. 두 번 이상 본 영화	〈her〉, 〈더 라더: 책 읽는다는 남자〉, 〈종이집〉 ... 〈라라랜드〉		
8. 잊을 수 없는 대사	"같이 갈래요?", "사실게 숨어 차요", "The." "너나 너 안에 한 조각이 있었어" "마지막에 기다리게"		
9. 지금 생각나는 영화 한 장면	윤이강은 주인공을 깨고 뛰기때문 귀찮음, - 장미만 경화 강아지 낚는 유배방 - 가는 가족		
10. 내 인생의 영화	〈her〉 〈라라랜드〉		

2차시부터 5차시까지의 참가자들의 과제 발표 및 영화토론을 전반부에 배치하고, 후반부에는 영화문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과제로 드린 주제는 ‘영화적 순간’과 ‘인생 영화’였다. ‘영화적 순간’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영화 속 장면에 대해 3분 이내 클립과 함께 발표할 것, ‘인생영화’는 자신의 인생영화 혹은 추천영화를 골라 부가설명용 이미지나 클립과 함께 15분 이내로 발표할 것을 주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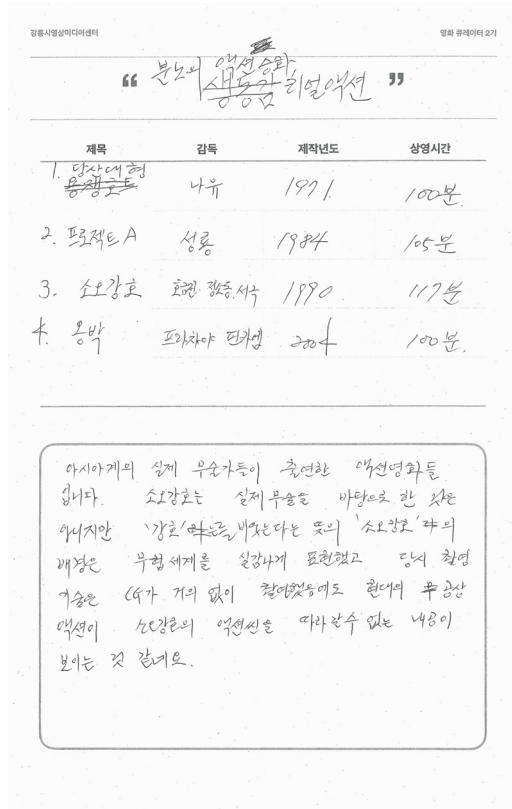
자신의 생각을 남들 앞에 서서 발표한다는 건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다. 소개할 작품을 선정하는 일부터 어떤 지점을 어떤 흐름으로 전달할 것인지 내용을 정리하는 일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준비한 내용을 온전히 전달해야 모든 과정을 수행한 것이 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큐레이터 활동을 염두에 둔다면 한 번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경험이 중요하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성의껏 발표 준비를 해왔고, 개인간 편차는 있을지언정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제 발표에는 우연찮은 경험, 여행의 기억, 개인의 화두 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덕분에 영화라는 매체가 얼마나 내밀한 개별성을 갖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여기에 영화에 대한 지식을 좀더 녹여내고 보편성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영화해설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그래서 이어지는 영화토론이 중요했다. 기본 논제를 통해 캐릭터와 서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대해 함께 분석하고 토론했다. 이미 잘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에서 한걸음 깊이 들어가기. 나와는 다른 관점의 해석을 수용하거나 반박하면서 영화감상의 지평을 한뼘 넓히기. 두 가지 목표 아래 영화에 대한 총평부터 한 줄 평까지, 한 시간

세 번에 걸친 영화토론 중 두 작품은 강사 지정 영화였고, 마지막 작품은 각자가 추천한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추천 이유를 들은 다음 투표로 결정했다. 4기 영화토론 대상작은 지정 영화로 <인 디 아일>, <인사이드 르윈>, 수업 참가자들이 함께 고른 영화로는 <비밀은 없다>였다. 대중영화 외에는 접한 경험이 없다는 한 참가자는 독일에서 제작된 독립영화로 마트노동자들의 삶을 다루는 <인 디 아일>에 대해 ‘두고두고 생각날 잔잔한 영화’라 평했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며 퇴사를 결정한 한 참가자는 퇴사 전날 이 영화를 보게 돼 무척 절묘했다며 ‘바다냄새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친 파도를 만져봐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 줄 평을 남겼다. 토론을 마친 후에는 해당 작품의 특징적인 연출스타일을 정리하면서 후반부의 영화문법 내용과 연결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미지수지만,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땅치 않았는데 그 계기가 마련되어 좋았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만큼, 영화토론 시간이 매우 즐거웠음은 확실하다.

후반부 영화이론 파트에서는 다양한 클립을 통해 기초적인 영화문법을 다루었다.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영상언어가 영화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관객은 감독의 영화적 수수께끼를 풀고자 노력하기 마련인데, 기본 지식이 있으면 퍼즐 맞추기의 즐거움이 훨씬 커진다. 나는 이 영화에서 기쁨과 슬픔, 통쾌함과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 미장센의 효과였을까, 왜 이 타이밍에 쇼트 사이즈를 바꿨을까, 이 영화에는 왜 수평 트래킹 쇼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을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연출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영화는 좀더 내 것이 된다. 영화적인 관점에서 할 말이 생기는 것이다. 흔히 하는 캐릭터와 서사

분석에서 조금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준비한 시간이었는데, 참가자에 따라서는 익숙치 않은 용어가 한꺼번에 다뤄지니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도 대체로 고개 끄덕이며 귀 기울이고 큰 도움이 되었다며 격려해 주는 분위기라서 수업 참가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하며 <우리집> 제작현장에서 활용되었던 촬영수칙 프린트를 직접 준비해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어린이 배우 연출을 잘하기로 정평이 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윤가는 감독의 작업 스타일을 비교, 설명해 주셔서 무척 흥미로웠다. <4학년 보경이>의 경우 감독의 연출 포인트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하게 짚어가며 유쾌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내멋대로 영화제’ 활동지로 자기만의 색깔이 담긴 상영기획도 해봤다. 신기하게도 겹치는 내용이 별로 없었고, 실제로 해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 기획들도 나왔다.

3. 후속활동 사례

1~2기 수료생들은 ‘주말엔영화’ 프로그램에 결합하여, 지금까지 격주 상영기획과 영화해설을 맡아오고 있다. 2018년에는 각자 소개하고 싶은 영화를 선정했고, 2019년에는 사전 주제를 정한 다음 작품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여름 기획전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일정 조율이 어려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관객들께 큐레이터 활동이 얼마나 좋은 인상으로 각인되었는지는 평가가 필요하다. 원고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큐레이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관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가에 대한 고민이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둘이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명확한 만큼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작품에 따라서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는 폭넓은 접근도 시도되면 좋겠다. 또 하나 언급할 것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도라는 점이다. 열심히 준비한 내용도 전달하는 태도에 따라 관객들에게 가닿는 정도가 현격히 달라진다. 관객들과의

6차시 영화 큐레이터 실습은 주어진 국내 단편영화 네 편 중 한 편을 골라 영화 해설을 하는 것이었다. 민동현 감독의 <지우개 따먹기>를 제외하면 모두 2019년 개봉작을 내놓은 여성감독들의 단편으로, 김보라 감독의 <리코더 시험>, 윤가는 감독의 <콩나물>, 이옥섭 감독의 <4학년 보경이>였다. 어떤 작품이 선택될지 궁금했는데, 중복선택된 영화는 <콩나물>이었다. 같은 작품을 두고 한 분은 어린이 배우와 함께 하는 감독의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

눈맞춤이랄지 적당한 발성과 명확한 발음 같은 것은 연습과 경험이 두루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좋아서 하는 일’의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미디어센터라는 공적 기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므로 그에 걸맞는 무게감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2018년에는 강원권 미디어센터 연합상영회인 ‘반짝반짝 빛나는 영상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강릉을 비롯해 원주, 화천, 제천에서 제작된 시민들의 작품을 상영하는 자리였는데, 공간 세팅부터 손님맞이, 영화 상영, 시상식 진행까지 전과정에 큐레이터들의 노력이 들어갔다.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손발을 맞춰가며 결코 작지 않은 행사를 잘 치러냄으로써 공동의 기억을 만들었다는 점이 뿌듯하다.

2019년 5월에는 아시아나 국제영화제 순회상영전에 세 명의 큐레이터가 함께 했다. 기존에 해 온 작품들이 대개 대중적으로 알려진 장편영화였다면, 이번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단편영화라는 점에서 모험적이기도, 도전적이기도 한 경험이었다. 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하게 된 질문이 있다. 전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맡기고 있는 큐레이터 활동 방식에 문제는 없는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역량을 키우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열정과 즐거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등등. 우리 안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이대로 충분한 사람도 있다. 누군가에게 문제인 것이 다른 이에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으니, 그건 영화에 대한 애정, 큐레이터 활동에 대한 의지다. 바탕이 탄탄하다면, 결국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영화다반사’의 월례 세미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화다반사’는 <나도 영화 큐레이터> 과정 수료생들이 만든 모임의 별칭으로, ‘주말엔영화’ 활동과는 별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영화를 추천하고, 추천한 사람이 진행을 맡아 영화토론을 하고 있다. 올해 세미나에서 다룬 영화는 ‘더 문’, ‘데쓰 프루프’,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밀양’, ‘파수꾼’, ‘동방불패’ 등 여섯 편이고, 극장에서의 번개모임 - ‘밤의 문이 열린다’,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 도 두 차례 가졌다.



4. 고민과 제언

<나도 영화 큐레이터> 과정 초기에는 미디어 센터와 접점이 많은 이용자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갈수록 영화를 깊이 읽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얼굴들이 참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6주차의 기초과정은 영화라는 매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시작일 뿐이어서, 영화비평 등 심화과정이 이어지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마침 올해는 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처음하는 영화비평’ 과정이 진행되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연계할 수 있었다.

후속모임인 ‘영화다반사’가 내년이면 3년차를 맞이한다. 작게나마 경험을 쌓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선배 큐레이터들과 이제 막 결합한 후배 큐레이터들이 잘 융화되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센터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조언도 해 주시고, 도움을 청할 때 지금처럼 손잡아 주신다면 쑥쑥 잘 커나가지 않을까.

마지막 고민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영화를 발굴해 내고 응원할 것인가. 멀티플렉스 관람 환경에서 상영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을 선택하면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대로 잊혀지기엔 아쉬운 완성도 높은 영화들에 조명을 비춰야 할까? 극장보다는 도서관과 같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미디어센터에서 주말 영화를 즐기는 어르신들을 위해 고전영화나 흥행영화를 상영해야 할까? 모두가 저마다 옳다. 다만 영화를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 됐든 다양한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강릉에는 독립예술극장도 있고, 독립영화제, 미디어협동조합, 미디어센터도 있다. 시네필름들이 이 모든 공간에서 격의없이 흘러다니며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취향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관객의 취향이 다양해지면, 제작의 저변도 넓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 우리 큐레이터들이 촉진자가 된다면 무척 신날 것 같다.

중급제작 아카데미

정재빈 (미디어 교육자)

1. 교육을 들어가며

중급제작아카데미(이하 중급과정)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18차시 수업이다. 3월에 시작한 영상제작기초과정(이하 기초과정)의 연장선에 있는 수업이다. 기초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2월에 센터 담당자와 두 교육의 미디어교육자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기초과정을 수료한 참여자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중급과정을 수강하는 그림을 구상했다. 그래서 두 교육 수준 차이를 어떻게 나눌지 논의했다. 예를 들어 기초과정에서는 카메라 사용법 위주로 교육한다면 중급과정에서는 촬영 이론 수업을 하는 식이다.

교육 전, 고민 지점이 있었다. 첫째, 참여자들이 영상을 작업할 때 팀으로 진행할지 각자 작업할지 정해야 했다. 나는 팀 작업을 하길 바랐다. 기초과정에서는 개인 작업을 경험해봤으니 팀 작업도 경험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작업할 일이 없다. 그리고 팀 작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성장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참여자 간 시간 조율이 어려울 것 같았다. 개인 작업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자들이 원하는 경우 팀 작업을 하기로 했다.

둘째, 교육에서 교육자 역할이 중요하다. 주교육자는 수업진행을 하고 보조교육자는 출석체크, 참여자 연락,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보조교육자로서 참여자들과 관계 형성도 신경 써야 했기에 걱정이 됐다.

수강신청을 받으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신청자가 적을까 봐 걱정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했다.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했다. 다행히도 참여자 수준을 파악한 사전질문지 응답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청자들의 대답은 수준을 파악하기엔 너무 빈약했다. 다음에도 수준별 참여자 분석이 필요하다면 설문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게 진행돼야겠다.

노인과 장애인이 수업 신청을 했다. 중급과정 이 수준이 높은 교육이다보니 걱정됐다. -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몇 마디 더 하겠다. 중급과정은 기초과정 다음 단계로, 작품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사람이 듣는 수업이다. 작업 경험이 있고 기초 영상 지식이 있는 사람을 수업 대상으로 해야 했다. 하지만 기초과정을 수강한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은 기초적인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워 했다. 심화 과정을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 고민은 뒤에서 문제로 다시 등장한다. - 최종적으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제작 경험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은 합격했다. 그중에서도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 것 같은 분은 가족과 함께 듣는 조건으로 합격시켰다.

사전설문지 응답을 읽다 보니 영상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하지만 중급 제작은 이론 교육 위주 수업이라, 커리큘럼 고민을 다시 해야 했다.

2. 교육과정

수업은 생각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몇몇 참여자들이 첫 시간부터 나오지 않기도 하고 중도 포기했다.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다. 일반 시민 대상 수업에서도 출석하지 않는 참여자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당황스러웠다. 이런 경험이 몇 차례 쌓였다. 교육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되돌아보기도 했다. 수업 방식이 잘못되었는지, 참여자들에게 실수한 것이 있는지 끝없이 생각했다. 이번 수업은 교육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통화로 참가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도 첫 시간부터 나오지 않았다. 속상했지만 한편으로 안심이 된 부분은, 교육자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의 짐을 약간 내려놓게 되었다. 첫 시간부터 출석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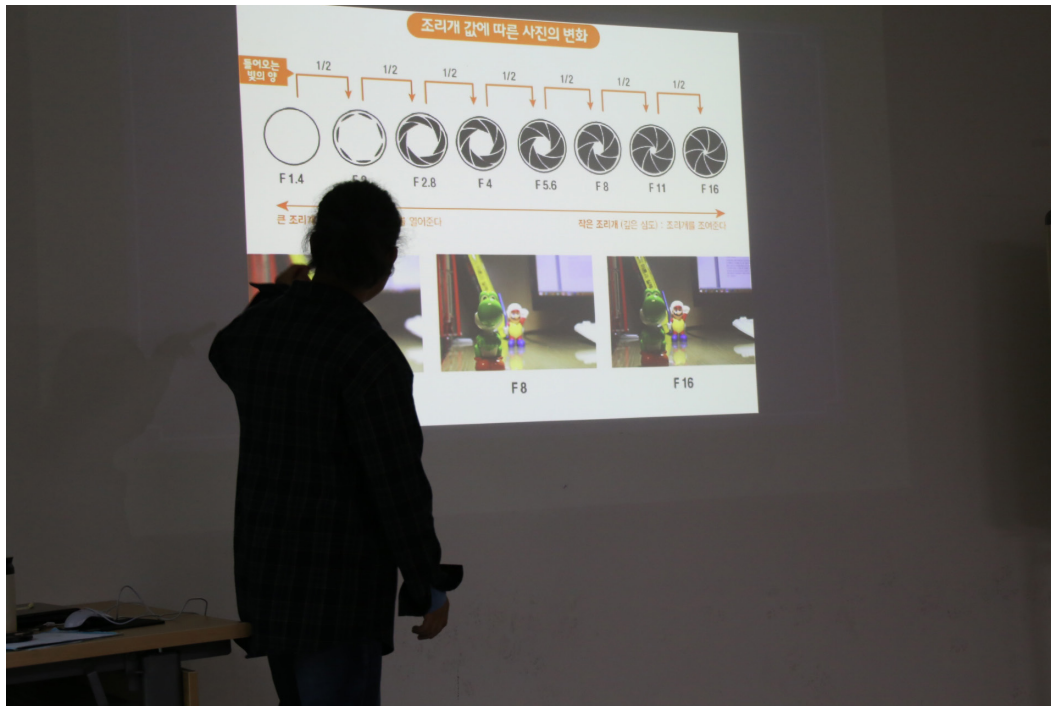
않은 사람들은, 쉽게 신청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수업 전 자세한 설문이나, 면접을 통해서 수업 수강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 수업료를 받아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겠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명확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수준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다. 알아야 할 이론도 많고, 어려운 기술도 많은데 참여자 대부분이 그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 모집 조건이었던 ‘영상제작 경험이 있는 분’은 애매한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론 대신 장비 실습시간을 많이 배치했다. 참여자 대부분이 소형 캠코더나 스마트 폰으로 촬영했던 경험밖에 없어서 기초 촬영 교육이 추가되었다. 그 과정에서도 참여자 간의 수준 차이가 컸다. 수업 수준을 최대한 낮춰, 기초과정과 비슷해졌다.

기획단계 과제가 주제 정하기, 구성안 작성하기, 촬영 일정 작성하기, 이렇게 세 가지였다. 완벽하게 작성해오신 분도, 간단하게 작성해오신 분도 있었다. 영상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분들이나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자세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분들은 많이 어려워 했다. 제출 기한을 넘겨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국엔 그만두신 분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한 노인 참여





자는 기획단계부터 어려워 했다. 구성안 작성 과제를 냈을 때, 막막하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구성안을 작성하지 못했다. 결국은 전화로 다음 수업부터는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참여자가 중도포기를 한 두 번째 이유는 차시 길이와 관련 있었다. 3시간씩 18차시, 꽤 긴 수업이라 출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낮, 주 2회 운영하다 보니 직장인은 출장이나, 야근 등의 이유로 지각과 결석을 많이 했고, 어떤 대학생은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결석했다. 촬영과 편집 단계에서 참여자 속도보다 교육 진도가 빨리 나갔다. 교육자와 참여자 모두 힘들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참여자와의 관계 형성에 걱정이 많았다. 필사적으로 이름을 외웠다. 다행히도 매일 출석체크를 하다 보니 금방 외워졌다. 날씨, 식사 이야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 어떤 수업보다 참여자와 많은 대화를 했다. 참여자로부터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사운드와 조명 장비 교육은 계획에 없었다. 인터뷰 촬영과 음식 촬영을 계획한 참여자가 있어 사운드, 조명 실습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때도 수준 차이가 컸다. 어려움을 느끼는 참여자들은 뒤에 서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흥미를 이끌어낼까 고민했다. 후반부에 조명을 설치하면 화면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기도 했다. 붐마이크로 담기는 소리를 헤드폰을 쓰고 직접 들어보고서야 신기하다, 재밌다고 하며 흥미를 보였다.

교육 내용 중 참여자들이 제일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편집이다. 요즘엔 어떤 교육을 들어가든 편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일 많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준 차를 고려해 간단한 툴 사용부터 시작해서, 색보정과 사운드 심화 교육을 했다.

중급과정은 참여자에게 엄격했다. 촬영 구성안과 일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장비를 대여할 수 없었다. 촬영을 해오면 무조건 수업 시간에 함께 보며 피드백을 했다. 상영회 때도 미완성작은 상영하지 않았다.

어떤 교육이든 아무리 힘들어도 상영회가 지나면 뿌듯하고 좋은 기억이 남는다. 참여자 모두가 힘들게 만든 작품이니 큰 스크린에서 봐서 좋았다. 제작과정을 함께하고 작품을 몇 번이고 함께 봤더니 작품에 대한 애정과 등장인물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 상영회를 찾아주신 분이 몇 없어 조금 아쉬웠다. 상영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참여자가 둘 있다.

한 참여자는 이 수업에서 얻어가는 것이 많다고 했다. 전에도 비슷한 주제로 여러 번 작품을 만든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수업에서 장비 사용법도 배우고, 이론도 배워서 활용하고, 여러 작품을 보며 시야도 넓혔다. 항상 자신만만하던 태도를 보이던 본인데 촬영본을 함께 볼 때 부끄러워했다. 수업에 제일 열심히 임하며, 과제나 제작을 제일 꼼꼼히 했다. 상영회 때, 마지막 소감으로 전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을 만든 것 같아 좋았다고 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

다른 한 참여자는 수업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항상 열심히 했다. 많이 어려워했지만 끝까지 수업을 들었다. 촬영이나 편집의 심화를 배우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다. 수업 초기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들이 있지만 부끄럽다며 보여주지 않았다. 막상 완성하고서는 제일 뿌듯해했다. 힘들게 고생해서 만들었으니 유튜브에라도 올려서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 교육을 마치고

상영회가 끝나고 센터 사무실에서 조촐하게 상영회를 축하하며 다 같이 케이크를 먹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여자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다. 앞으로는 잠시 쉬고 작품을 또 만들고 싶다고 했다. 참여자 간에도 친분이 생겨서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이 길어서 그런지, 끝이라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이 수료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까지 긴 수업은 처음이었다. 차시가 짧은 수업에 비해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배우는 게 많았고, 교육자와 참여자 간의 친밀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도 좋았다. 무엇보다 시간에 덜 쫓겨서 좋았다. 중간에는 수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한참 남아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끝나고 나니 처음의 고민이 작게 느껴졌다.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참여자 간의 소통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참여자와 꼬박 18차시를 함께 하며, 매 수업마다 문자를 하고, 수업이 통화하고,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다보니 참여자를 대하는 요령이 생긴 것 같다. 긴 수업이 끝나서 허전함을 느끼기도 하고, 참여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얼마 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누구나시민영상제>에서 만났을 때 너무나도 반가웠다. 힘들지만 얻는 게 많은, 이런 수업을 또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② 시범 교육 진행기

누군가의 사적인 악기 '목소리' <1인미디어 스토리텔링>

박은희
(미디어 교육자)

1. 교육에 들어가며

나는 어릴 때부터 목소리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때 한 아이가 복도에서 보자마자, “너는 다 좋은데, 목소리가 이상해.” 라는 말을 하고 유유히 사라진 적이 있다. 나쁜 놈! 그 사소한 한 마디가 내 인생 2/3를 괴롭혔다. 자라는 동안 나는 사람을 볼 때도 얼굴보다 목소리를 봤고, 목소리 좋은 사람에게 어쩐지 호감이 갔다. 내가 가진 결핍을 누군가로 채우려는 욕망이었다. 지금은 다행히 생각이 바뀌어서 전형적인 아나운서처럼 좋은 목소리보다는 그 사람의 개성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더 좋아한다. 작고 힘없는 지금의 내 목소리도 당연히 좋아하게 되었다. 우리는 목소리만으로도 상대를 알아본다. 목소리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그렇게 평소에 관심 많았던 누군가의 사적인 악기 ‘목소리’라는 콘텐츠로 오롯하게 전달할 수 있는 팟캐스트 수업을 할 기회가 와서 정말 기뻐다.

시작은 이랬다. 이왕이면 수업시간은 센터 이용이 적은 평일 오전이면 좋겠다는 제안이 왔다. 양육자를 대상으로 잡고 아이 들은 센터 내 미디어데크에서 DVD를 시청하는 동안 양육자는 팟캐스트 수업을 듣고 미디어에 관심을 유도하게 해보자는 것이었다. 나름 괜찮은 방안이다 싶어서 나도 흔쾌히 수락했다.

대상자를 좁힐수록 수업 준비가 더 원활해진다.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공통의 주제나 화제가 생길 것 같았다. 조를 구성해 아이를 키우며 일어난 에피소드를 가볍게 대화하듯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긴장하는 일도 적을 테고 화제도 풍성해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안고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정해진 5차

시라는 짧은 시간 동안 크게 욕심내지 않고 함께 하는 수강생끼리 친밀감을 가질 수 있으면 재밌겠다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렸다.

“저기 은희 쌤, 모집은 일단 됐는데요, 그러니까...”

“네?”

수업 첫날 강의실에 하나 둘 입장하는 수강생들을 마주하고 나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한 양육자의 범주와 조금 먼 느낌의 고연령층 수강생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정해진 연령대가 어디 있겠냐만은. 그러니까 더더욱 대상인가 아닌가 논의하기엔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 그냥 확실한 건 수업을 준비하며 상상하던 대상은 절대 아니었다. 오매. 어쩔담. 수업 난이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다.

2. 교육과정

첫 시간은 가볍게 가기로 했다. 과거 라디오 시그널 퀴즈도 풀고 팟캐스트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앞으로 녹음할 기획안 초안을 함께 작성했다. 뭔가 잘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작성하는 동안 일대일로 곁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팟캐스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신청한 수강생도 있었고, 팟캐스트 녹음이 아닌 녹음 기술과 장비의 디테일을 배우고자 신청한 수강생도 있었다. 그러니 모두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반짝이는 눈을 마주치고 있다 해도 모두가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끄. 나는 최대한 수업방향에 양해를 구했고, 앞으로 녹음 장비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콘텐츠 제작과 팟캐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도를 높이는 일에 중점을 둘 거라고 안내했다. 약 1분 정도 말할 수 있는 오프닝을 직접

쓰고 녹음까지 1차시에 모두 진행했다. 생각보다 각자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조를 구성해 메인과 게스트 느낌으로 녹음하려 했었다. 막상 참여한 수강생들은 평소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주제나 컨셉이 있었고, 각자 원하는 톤 앤 매너와 무드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방송을 만들고 녹음해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아직 팟캐스트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한 수강생 중 한 명이 다른 수강생에게 함께 녹음 제작할 것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따로 있어 신청한 수업이라며 어색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뭐든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해도 막상 현장은 내가 완벽하게 상상할 수가 없다. 이토록 어색한 사태를 보고 나는 ‘교육자로서 더 강력하게 수업 시스템을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제안했어야 했나?’ 하는 자책과 고민도 잠깐 했었다. 하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아 두 사람 이상 조를 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더더욱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바쁜 수강생들이 시간을 맞춰 무언가 만들어오기보다 평소 만들고 싶은 아이템을 혼자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았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수업은 소수 인원이 신청했으므로 개별 녹음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함께 하는 교육자님과 사전에 충분한 회의를 했어야 했는데, 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그러지는 못했다. 수업 과정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하다. 왜냐면 녹음을 개별로 하게 되면 역시나 일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수강생들은 결과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혹 정해진 수업 시간이 지나고도 재녹음을 하는 사태가 벌어

지기도 했다. 게다가 수업 끝나는 시간이 정오 점심시간, 배고픔은 착한 양도 늑대로 변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예민해질 수 있는 시간임에도 끝까지 성의를 다해준 기술 교육자님에게 감사사를 표한다.

그렇게 1차시 녹음이 끝나고 기술 교육자님이 녹음본을 편집해 오면 2차시 수업시간에 함께 들었다. 예상보다 훨씬 매끄러운 녹음과 진행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린 콘텐츠의 매력이 훨씬 느껴졌다. 2차시부터는 본격적인 본문 내용 그리고 가능하면 클로징까지 만들었다. 특히 팟캐스트 대본을 쓰다가 막힐 때엔 짧은 시간 안에 같이 교정하는 일도 필요했다. 각자 만들고자 하는 방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단어를 선별했고, 팟캐스트 방송 시기에 맞춘 대본을 짜기도 했다. 앞의 내용과 오프닝과 연결성도 필요했고 지난 시간과 다른 주제가 떠올라 오프닝부터 재수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3주 차였나?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감기에 걸린 수강생이 많았다. 본인이 감기에 걸린 이상 같은 마이크 사용은 안될 것 같다며 센터 앞에서 돌아간다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대로 발걸음을 돌린다면... 이런저런 소소한 배려에도 서로 감동했고 서로의 콘텐츠를 응원했다. 수업은 조금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각자 만들고 싶은 콘텐츠 취향이 다른 것도 수업 결과물의 재미였다. 각자 고른 음악과 목소리 매치가 너무 좋아 매번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모두들 환호했다. 시그널 음악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을 사용했다. 기술 담당 선생님이 미리 음악을 골라오셨고, 그 중 목소리와 콘텐츠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수강생과 함께 들여보며 선택했다.

5차시에는 각자 받은 파일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 보는 일로 마무리했다. 그렇게 우리는 가슴 속에 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수능을 앞둔 조카에게 선물하겠다는 수능 응원 대본을 만들거나 이제는 볼 수 없는 부모님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녹음하는 동안 본인의 이야기를 하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린 수강생도 있었다. 우리는 가끔 진실한 자극에 무감각해진다. 답답했다고 생각하던 일도 실제로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기도 한다. 그렇게 마음을 목소리에 담아 가만가만 녹음하는 동안, 조금은 부끄럽고 때로는 유치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하고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 이와 마음을 공유하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때론 이 세상에 나를 기다려주는 이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계속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3. 교육을 마치고 (시작이 막막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표현할수록 자기자신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나라는 인간을 단면이 아닌 좀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니까. 나는 1년 전부터 강의가 아닌 팟캐스트를 직접 제작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역시 막상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분명 계층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했다’는 것에 함께 용기를 얻었다.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참가한 인원 모두가 기획하고 글 쓰고 녹음까지 마쳐야 하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모든 콘텐츠의 완성엔 마감날짜가 하는 거라고, 신기하게도 정해진 차시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팟캐스트 제작의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인원 문제일 수도 있겠다. 처음엔 다섯 명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녹음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했다. 그렇게 수업을 해본 결과 역시나 5-8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결석이나 중도하차하는 사람까지 감안해서 그렇다. 녹음을 한번에 끝내기 어렵기 때문에 몇번씩 재녹음을 하게 될 경우 꽤 긴 시간을 잡아먹는다. 팟캐스트 방송은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작은 소음이나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크게 티가 난다. 수강생 역시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니 처음부터 미리 녹음 횟수를 정하고 해야 한다. 당시는 3차시에 걸쳐 한 꼭지를 천천히 녹음했기에 조금 틀리더라도 연습 중이라는 뜻을 항시 전달했다. 1인 미디어 방송을 할 경우에 대비한 팟캐스트 제작 경험이라는 말로 수강생들의 불안을 달랬다. 만약 차시가 길어지고 콘텐츠 퀄리티에 대한 수강생 스스로 기대치가 높다면 이 부분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 만족하는 콘텐츠가 나올 때까지 녹음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 부족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마무리했을 경우 자칫 기분이 상할 염려가 있다. 부족한 게 있어도 정해진 시간상 그대로 진행해야 함을 수업 시작 전에 충분히 인지시키고 녹음 횟수를 정한 후 수업하는 게 좋다.

어쩌면 녹음 횟수는 기술 선생님과 미리 회의를 통해 정한 후 수강생들과 약속할 수도 있다. 수업 분위기나 시간적 여유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을 기술 선생님과 충분히 합의해야 한다. 만약 조를 짜면 더 빠르게 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세 사람 이상 참여했을 때 한 사람씩 말이 꼬이면 편집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서로 파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퀄리티가 낮아질 수도 있어서 수업 회차 중 한두 번 정도 게스트 초대 형식으로 서로 역할을 나누어 시도해보는 것도 재미 요소를 줄 수 있겠다.

기회가 된다면 수강생들이 직접 자신의 녹음 파일을 편집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 녹음하는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기에 기술 교육자님이 집에서 따로 파일을 하나하나 편집해야 했다. 적은 인원이라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음악에 맞춰 디테일을 잡으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겠다. 또 대상을 넓혀 양육자가 아닌 성인으로 하고 수업 차시를 좀더 늘여보는 건 어떨까. 차시 추가는 수강생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집에서 혼자 하기보다 좀더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 센터에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쨌든 같이 만들면 동기 부여도 되고,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으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업하는 것도 좋겠다.

팟캐스트 수업은 영상 촬영보다 제작 속도가 빠르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 또한 교육자의 편집 개입이 들어간다 해도 수강생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서 좋았다. 영상 미디어보다 전체적으로 부담이 낮아 진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물에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다. 특히 녹음실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카메라 앞에 서는 일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적응력도 빨라진다. 팟캐스트는 몇 번 익숙해지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미디어다. 시작이 막막한 누군가를 위해 팟캐스트 강의가 좀더 자주 열렸으면 한다.

<방방놀이터> 교육을 마치고

김하진
(미디어 교육자)

1. 방방놀이터라는 교육과의 만남

미디어교사 양성 교육에서 방준극 선생님의 모의 수업과 기획서에서 방방놀이터의 초안을 보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초등학교 대상 수업이라서 어려운 이론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교육에 놀이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자유롭게 놀듯이 배우는 수업 분위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던 차에 방방놀이터 교육제의를 받았다. 처음으로 겪는 초등학교 미디어 교육에 대한 흥미와 소리를 활용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꾸려갈지에 관한 고민을 안고 교육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소리를 일상 속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혹은 평소보다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것을 수업의 최종목표로 삼았다.

네 명의 교육자가 각자의 분야별 소리를 교육한다는 기획 회의 이후 담당하는 파트의 커리큘럼을 설계하면서, 영상에 있어 소리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또 더빙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느낌을 놀이로 승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영상을 보고 발표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퀴즈 게임 같은 형식을 고안했고, 더빙할 때 참여자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애니메이션을 간추리고 영상에 소리를 입히는 것이 어렵지 않을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보면서 커리큘럼을 완성했다.

2. 교육과정

첫날은 직접 진행하는 수업은 아니었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참여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강하게 든 생각은 제대로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돌발상황에 관해 미리 준비해 두지 못해 대처가 미흡했고, 잘못된 행동을 말할 시에 참여자들이 곧장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투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냥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억압하기보다 다른 방식을 제안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알고 잘못된 행동임을 스스로 인지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음에도 그런 노력에 게을렀다는 생각

첫날은 직접 진행하는 수업은 아니었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참여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강하게 든 생각은 제대로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돌발상황에 관해 미리 준비해 두지 못해 대처가 미흡했고, 잘못된 행동을 말할 시에 참여자들이 곧장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투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냥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억압하기보다 다른 방식을 제안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알고 잘못된 행동임을 스스로 인지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음에도 그런 노력에 게을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여실히 느꼈다. 어플리케이션을 아이패드에서 미리 다운로드하지 않은 탓에 당일 급하게 준비하면서 결국 기술적인 문제로 다음 선생님의 교육과 일정을 바꾸게 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교육의 대주제로 삼았던 더빙을 제시할 수 없었던 점도 스스로는 물론 참여자들에게도 아쉬웠으나,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었다. 대본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꿔보는 활동을 이틀에 걸쳐 진행하면서 좀더 공들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참여자에게 너무 어려운 활동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적인 활동으로 만들고 싶어 우선 소리 없는 영상을 원본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대사가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뒤, 대사 일부를 잘라낸 대본에 자신만의 대사를 넣도록 했다. 일부 팀에서는 아예 대본을 통째로 바꾸는 과감함마저 보여주어 수업을 준비한 사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교육 중 참여자들은 의자에 앉고 교육자는 보통 서 있었는데, 대화를 나눌 때조차 눈높이가 위쪽에 있으면 고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여겨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거나 옆자리가 빈 경우에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발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쉽게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갔으며, 누군가 말할 때 모두가 집중해 듣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자들과의 관계형성에서 다른 교육자 분들이 ‘소근소근’, ‘재콩쌈’ ‘빵’ 등 이름을 활용한 재치있는 별명을 사용하는 와중에 혼자 그냥 ‘하진’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 나중에 조금 아쉬워졌다. 참여자들은 소근소근 쌈은 별명과 달리 말이 많으며 재밌어했고, 빵 썸 같은 경우는 앞에 이런저런 수식어가 붙으면서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부른 별명이기도 했다. 어쩌면 교육이 끝난 후에도 이름 대신 별명으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별명으로 접근하는 것이 참여자들과의 거리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 차시가 되어 시작한 더빙에는 대부분 열성적이었고, 녹음 후 효과음을 넣는 과정에서 파일이 사라지는 사고가 있자 다시 녹음하겠다고 망설임 없이 도전한 팀도 있었다. 그 팀은 첫 더빙을 완성하는 데 너댓 번의 시도를 했으나, 두번째 더빙에서는 한번에 완성하는 등 굉장한 집중력을 보였다.

그 팀뿐만 아니라 아예 대본 전부를 수정한 팀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속 인물이 점프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등 현실성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다. 알맞은 타이밍에 녹음된 영상에, 입모양이 목소리와 맞추어 움직이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계속 돌려보는 참여자도 있었다. 결과물을 바로 볼 수 있는 형태가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방방'놀이터'와 교육 사이

전반적으로 '놀이'와 '교육'의 경계를 오가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물론 노는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의 교육을 목표로 삼았으나 최소한 교육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풀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므로, 만약 다시금 방방놀이터 같은 교육이 진행된다면 초반에 확실히 적정선의 규칙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방방놀이터의 참여자들도 교육이 진행되면서 점차 교육자의 말에 집중하고 다음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육이었다면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장비로는 아이패드를 적극 활용해보려 했지만, 파일을 옮기고 분류하는 등의 과정에 있어 불편함을 느낀 탓에 교육에는 다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더 추천하고 싶다. 아이패드로 소리를 녹음하길 즐기는 참가자도 물론 있었지만, 주제를 바꾸어도 곧 단순히 반복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금방 끝내고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운드 특화 교육 시에는 색다른 방식의 녹음법을 찾거나 수업시간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중간에 남은 시간의 활용법도 고려할 문제 중 하나다. 한 팀씩 차례로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녹음하다 보면, 남은 참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 지니 소란을 피우곤 하여 교육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양한 간식과 소품을 활용했던 'ASMR 수업'의 경우 다른 팀이 녹음하는 사이 남은 슬라임과 점토를 가지고 놀다가 집어던지는 등의 돌발행동으로 교육자 여럿을 당황케 했다. 평범한 놀이터였다면 그렇게 질서없이 놀아도 문제가 없지만, 본질이 교육인 이상 통제해야 하는 일이다.

교육은 대부분 센터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스피커의 문제로 인해 일정 볼륨 이상으로 소리가 올라가지 않아 교육자가 가져온 샘플 사운드나 참여자들이 녹음한 것을 공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ASMR 같은 경우 아주 작은 소리를 담은 영상이라 담당 교육자분이 더 곤란을 겪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만한 준비를 한다면 더 원활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시민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은 무엇일까

김준기
(미디어 교육자)



1. "신비한 무비레터"는 어떤 수업일까

영상선물을 만들면 좋겠다!

어느 날 수업을 준비하다가 ‘영상선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고 교육 활동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청소년들과 함께 해온 미디어 활동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작품들이 있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영상들이다.

영상 제작과정을 체험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나는 영상을 만드는 의미와 마음도 함께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영상 혹은 그 외에 예술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업 목표도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로 설정한 것이다. 수업 참가자들이 이것을 알게 될 때 영상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영상편지라 하면 방송에서 흔히 다루는 표현방법을 생각하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로 전달하는 영상을 상상하게 된다. 그래서 영상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불특정 다수에게든, 사회에든, 특정한 누군가에게든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더욱 몰입하게 하는 힘이 있다.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을 해오며, 어떤 때에는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힘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의 중요성이나 공감, 공유의 부분이 많이 중요해졌다고 느낀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소통이다. 수업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제작한 영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여 영상을 통해 소통이 가능함을 알게 하고 미디어 활용의 더 확장된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되었다.

2.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는가

나는 염색과 피어싱을 좋아한다. 그리고 내 목소리는 남성답지 못하다는 말을 간혹 듣는다. 길을 걸어가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내 목소리를 들은 어떤 이들의 특별한 시선을 느낄 때 나는 매우 불편하다. 이런 내가 주교육자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조금 두려웠다.

그런데 청소년들과 수업을 진행해 보니 내가 겪어본 삶과 맞닿은 지점, 공감대가 많아서 편안했다. 첫 만남에서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많고, 교육자라는 위치에서 만나게 되니 다른 수업에 비해 차별과 편견의 말이 이전보다 적게 들려왔다. 혹 누가 그런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교육자로서 신뢰감이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나와 청소년 사이의 서로 다른 위치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참가자들을 배려하는 만큼 그들도 나를 배려하는 것 같았다. 어려서, 머리를 염색해서, 피어싱을 해서, 목소리 톤이 높아서, 못 미덥게 바라볼까봐...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수업을 시작했다.

3. 참가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자

참가자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고자 했다. 내가 처음 미디어 수업을 들었을 때가 떠올랐다. 영상을 짧게 만들었기에 영상 전체를 훑어보기 수월했다. 시즌1에서는 2~3차시에 짧은 영상 체험을 진행했다. 당시 학구열은 높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가 많았다. 편집을 체험만 하는 수업인데도 어려워했다. 그래도 집에서 복습해보기도 하고 아직 진도를 나가지 않은 수업내용까지 궁금해하고 질문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 나는 이후에 편집을 익힐 수 있는 수업이 이어질 거라고 안내했다. 더러는 체험수업이라도 어렵다며 일찌감치 포기하려는 참가자도 있었다. 참가자

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시즌2에서는 이 시간을 생략했다.

휴대폰과 캠코더 중 어떤 것을 영상제작 교육에 주 도구로 사용할까 고민했다. 수업이 끝나도 일상에서 촬영할 수 있으려면 휴대폰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미디어센터까지 와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영상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할테니 캠코더를 가르쳐드리면 좋을 것도 같았다. 그래서 이왕 수업을 하는 김에 두 가지를 모두 교육하고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었다.

시즌1에서는 각자 제작할 영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도왔다. ‘영상선물’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받는 사람이 느꼈으면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획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영상선물’ 주제와 다른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했다. 추상적이어서 그랬을까. 반드시 수업 의도에 맞는 작품을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제에 그저 얼추 맞춘 계획서가 많았다. 그래서 시즌2에는 더 명확한 미션을 제시했다.

시즌1에서는 영상선물의 대상을 모호하게 “~한 누구나”로 설정했다. 시즌2에서는 선물 받을 한 사람을 정하고 영상을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더 명확하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냈다.

<기획서 양식>

나의 선물은 _____에게 _____면 좋겠다.

- ① 선물을 받는 대상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나요?
- ② 선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인가요?
- ③ 선물에서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④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길 바라고 있나요?
- ⑥ 선물을 장면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기

영상 작업을 하다보면 누군가는 유일한 정답이 있다는 듯 피드백을 한다. 이것이 싫어서 나는 어떻게 피드백하는 것이 좋을까 많이 생각했다.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던졌다. 생각지 못한 색다른 비유나 촬영방식, 컨셉을 제안했다. 다른 참가자에게 피드백하다 보니 각자 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느끼는 분위기였다.

시즌2에서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다음차시부터 개인 촬영을 시작해야 했다. 무엇을 더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시즌1에서 “촬영을 막상 나가니 무엇을 찍어야 할지” 막막해했던 참가자의 말이 떠올랐다.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다. 역할극을 진행하면 실전 촬영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자A가 촬영할 상황 :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날, 펜션에 모인 친구들을 인터뷰 진행.) A가 카메라를 세팅하는 동안, 다른 참가자들과 모의를 했다. 먼저 들어온 친구를 인터뷰하다가 다른 참가자들이 들어오며 “1년만에 또 모였구나! 너무 반갑다!” 하며 소리치는 돌발 상황을 연출했다. “어머 카메라로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건데?” 하며 당황해하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실전 촬영에 임하니 어디에서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할지 자연스럽게 답을 찾아나갔다. 참가자들끼리 대화하며 아이디어를 충분히 공유한 뒤, 교육자들도 아이디어 공유에 참여했다.

(참가자B가 촬영할 상황 : 집에서 요리한 후 저녁식탁에서 아버님이 맛있게 식사하는 장면) 아버님이 맛이 없다고 하거나 별 반응이 없는 상황, 동네에 찹쌀떡 장수가 지나가는 상황을 연출했다. 참가자들끼리 재미있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떠올렸다.

5. 아무도 필기하지 말아주세요!

시즌1에서 화면 구성 수업을 진행하는데 참가자들이 필기를 했다. 다른 수업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시민제작에서 참가자들이 원하는 학구열에 맞추기 위해 나만의 활동적인 수업방식을 밀고 나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시즌2에서는 최대한 재미있는 방식으로 앵글과 사이즈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의자를 가운데 두고 사진을 촬영했다. 한 사람이 최소한 30컷 이상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후 본인의 사진 리스트에서 각 상황에 맞는 의자들을 선택하도록 했다. 어린 아이가 숨바꼭질할 때 숨을 의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17층을 걸어올라 온 사람이 앉을 의자. 일하느라 지친 사람이 앉을 의자 등 여러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각각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된 의자가 어느 것인지 체크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각자 촬영한 의자들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상황을 만들어보고, 사물 하나를 촬영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사이즈와 앵글의 변화를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체험하게 했다.

6. 사전 설문조사의 필요성

시즌1 당시 수업 참가자 중에는 고령의 학습자 세 분과 지적장애인 한 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전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했더니 교육자 두 사람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어하는 일부 참가자들의 열의와 거기에 부응하려는 나 자신의 활동적인 수업방식을 찾으려다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그래서 시즌2에서는 사전 설문지를 통해, 이 수업의 커리큘럼을 명확하게 이해하는지, 수업 진행에서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만한 부분은 없는지 미리 조사하여 참가자들과 서로 소통하고자 했더니 훨씬 수월하게 수업이 진행되었다.

시니어, 유튜버가 되다

허규연 (미디어 교육자)

1. 시니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우리는 지금 ‘노인이 노인을 케어’ 해야 하는 하는 ‘노노케어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8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 5,180만 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4.9%에 달하고 있으며 이른바 베이비 부머가 내년부터는 고령자로 접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700만 명의 베이비 부머가 고령자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고령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낯선 사물에 불과했다. 특히 스마트폰은 더욱 그렇다. 거액을 들여 구입하기는 했지만 그저 전화통화나 문자 주고받기용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어쩌다 화상통화 기능을 활용하여 손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고령자는 주변에서 대우받았다. 대중의 스마트폰 이용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여 이제는 PC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되었다.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기초교육 강좌를 개설한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기초교육을 받은 고령자 중의 많은 이가 또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여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고령자 층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유튜브에 관심을 두었고, 유튜브 업로드를 매개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령자들이 이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년이면 나도 노인의 반열에 올라선다. ‘노노케어’에 동참하게 됨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 많이 개발되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 교육과정 평가

1차시 수업내용으로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시니어 유튜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나이 든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려는 의도였다. 일본의 사례를 두 건이나 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박막레라는 분이 등장했다. 70이 넘는 나이로 젊은 시절 식당일로 고생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치매를 조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손녀와 다녀온 해외여행이 유튜브에서 빅히트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수업 참가자들의 눈이 순간 반짝임을 볼 수 있었다. 이후 사진 잘 찍는 법, 사진 보정하는 법, 동영상 촬영법에 이어 동영상을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과정까지 마쳤다.

차시를 거듭하는 동안 수업 참가자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수업을 경청하거나 필기를 하거나 하는 열성을 보였다. 어쩌다 결석을 하였을 때 다음 차시 수업 전에 일찍 나와 전 회차 수업을 보충해 달라 말씀하는 분도 계셨다. 안쓰러움보다는 의욕이 앞섰고 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었다. 결석 한 번 안하고 매번 출석하여 수업 내용을 꼼꼼하게 필기 하던 참가자가 단체톡 방에 글을 남겼다. “입원해 있는데요, 수업이 있다고 퇴원시켜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석해요,

다음 주에는 꼭 나갈게요.” 그 분은 그 다음 주에도 “입원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또 결석 하셨다. 그리고 또 글을 남겼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해요. 나머지 공부는 저 혼자서 해 볼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이 분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대해 본다.

수업의 진행은 주로 파워포인트나 스마트폰을 빔 프로젝트에 투영하여 보여주는 강의를 하였다. 시니어의 특성성 귀로 듣기만 하는 것 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해 본다. 또한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기보다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빔 프로젝트로 투영하여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강의한 게 참가자들에게 유익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업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어려웠던 점은 수업 참가자들의 수준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참가자들의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점도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한 요소이다. 따라서 전 회차 수업을 복습함으로써 기억을 되살린 후 새로운 과정을 진행하는 수업진행 방법을 선택했다. 많은 분량의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제대로 알려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수준이 조금 낮은 참가자가 수업 내용을 따라오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사태를 미리 막아보려는 의도였다. 그럼에도 참가자 몇몇이 중도탈락하게 되어 안타깝게 그치지 않았다.

수강 신청 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수업 분위기나 학습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강신청 시 학습의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수업과정은 참가자 모두가 협조하여 무사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수업 참가자 다수가 수업의 연장을 희망할 정도로 열기가 있었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3.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교육을 마친 수업 참가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은 “이런 수업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영상 편집에 대한 의욕도 증만했다. 매 회차를 거듭하면서 편집영상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기성 방송사 뉴스시간에 앵커 뒤로 영상이 보여지고 상단에 이미지가 있던데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 점점 재밌어지는데... 하며 호기심과 학습욕구가 날로 증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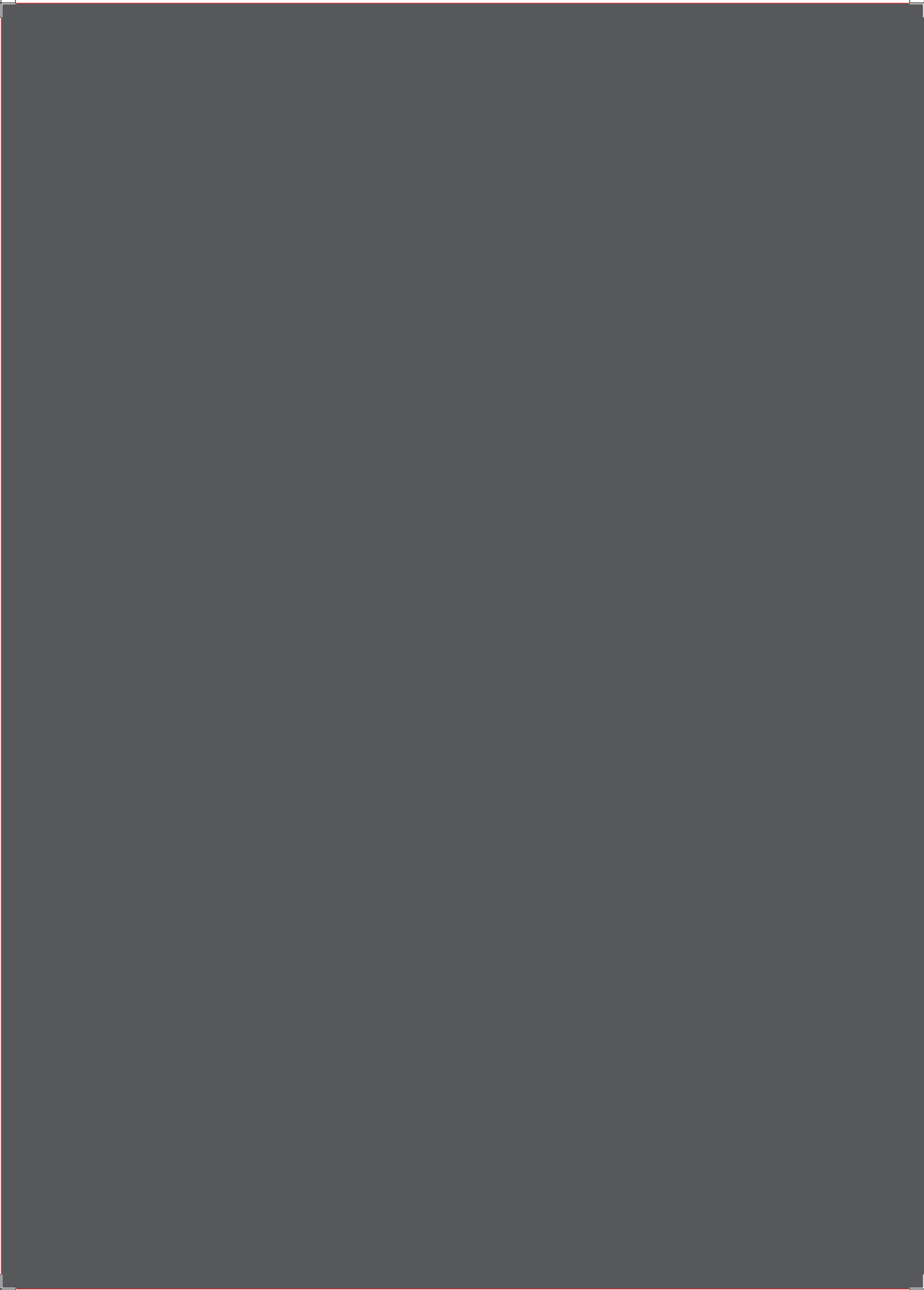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수강생들의 외침이다.

내년에는 중급반 수료생을 위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여 주기를 제안해본다. 이제 막 재미를 붙인 수강생들이 좀더 완성도 있는 동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번의 과정이 단순한 동영상 편집 과정이었다면 이를 토대로 단순한 동영상 편집을 벗어나 기획부터 시작하여 전 과정을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업과정이 개설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기존의 강좌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일이지는 하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정성스런 지원과 열성적인 수강생들 덕분에 강좌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부록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11. 14.]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81호, 2018. 11. 14., 일부개정]

강원도 강릉시(문화예술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0. 11>

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수수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미디어센터는 강릉시 울곡로 2923-12(교동)에 둔다.<개정 2017. 10. 11>

제4조 (사업)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사업
2.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미디어센터 장비 및 스튜디오 등의 제공
5. 영상물 상영, 영화·방송 제작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등

제6조 (사용허가) 미디어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및 수수료)

-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05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 전액
 4.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할 경우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제8조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7.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1. 14.>
- ③ 삭제 <2017. 10. 11.>
- ④ 삭제 <2018. 11. 14>[본조제목개정 2018. 11. 14.]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11>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0. 1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1.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 의원
 3. 교육, 문화, 영상 제작 및 기술 분야 전문가
 4. 영상미디어관련 법인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 10. 11.>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7. 10. 11.>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7. 10. 11.>
-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디어센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7. 10. 11.>

- ⑧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중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7. 10. 11.>
- ⑨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7. 10. 11.>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사항
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상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탁관리)

-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라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일 수탁기관과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미디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 제1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사용료 및 수수료, 수탁기관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7. 10. 11.>
-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에 따른 사업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수탁기관은 보조금 또는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운영)

-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 ①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미디어센터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5. 미디어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위탁의 취소 결정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 ③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21호, 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281호, 2018.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6. 1.] [강원도강릉시규칙 제439호, 2010. 6. 1., 제정]

강원도 강릉시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강릉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3. 국경일
-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한 휴관 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시간)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요원)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전문강사 초빙)

- ① 다양한 강좌운영과 이용자의 지도에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 ① 미디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시민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지도 및 보조업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③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정회원의 자격 등) 정회원은 미디어센터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마치고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자격과 의무 및 권리 등은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미디어센터의 사용과 장비 이용에 있어 우대한다.

제9조 (사용신청 등)

-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을 사용개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